법무부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세계인의 날이란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조

What is Together Day?

Together Day is a national commemorative day designated to create a society where everyone in Korea respects one another and lives in harmony through diverse cultural exchanges.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9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CONTENTs

01 이 나라는 저의 제2의 조국입니다 08
02 13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 되다! 12
03 한국 문학과의 여정 18
04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의 결실 22
05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길 바랍니다. 28
06 글로벌 인재 장학금 수여 34
07 한국의 삶 38
08 “Closer Than Borders: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때 국적을 뛰어넘은 뜻깊은 결실” 44
09 재한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포근한 아저씨 48
10 치매 시어머니와 함께한 10년 52
11 나의 행복한 제주살이 56
12 자국민 한국생활 적응 도우미 60
13 한국어 사랑으로 시작된 나눔의 기쁨 64
14 아프간 여성 의사를 꿈꾸며 70
15 따뜻한 나라 ‘한국’이 내게 준 용기와 희망 76
16 여수출입국 행복나눔 봉사단~! 사랑을 나눠요~^^ 80
17 이주민을 위한 달빛 84
18 우즈베키스탄 소녀의 다양한 경험 88
19 사회통합의 마중물 94
20 베풀 수 있어 행복합니다 100
21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가교가 되어 104
22 카이스트 학생 동아리 Silver Lining의 봉사활동 108
23 KAIST 국제화 및 글로벌캠퍼스 문화 조성에 공헌한 유학생 114
24 포기하지 않은 꿈과 한국에서 이룬 희망 126
25 몰도바에서 온 한국 아줌마 136
26 한국 거주 쿠바 여성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기 142
27 대구출입국 이민자 네트워크 “동행 프로젝트” 146
28 나의 출입국, 나의 금요일 150
29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54
30 하늘이 주신 선물 160
31 외국인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자통합센터 164
32 한국 입국, 26년간 난민과 이주민 등 소수자를 위해 일하는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출신 한국인 “이나니” 170

01 이 나라는 저의 제2의 조국입니다

강다은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키르기즈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이 나라는 저의 제2의 조국입니다

한국생활 적응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부산에서 21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아들 이렇게 세 명의 가족이 단란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첫 몇 년간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기는 하였지만 이 나라가 낯설기만 한 저에게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다문화가족이 더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해 1년 반 만에 휴대폰 공장에 입사하게 되어 동료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 키르기즈는 실업률이 높았고 친척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는데 입사 몇 년 후에는 집을 사기 위한 돈을 보낼 수 있어 기뻤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어가 익숙해지자 우연한 기회에 의료번역가 과정을 수강하였고 그 후 계약을 맺고 여러 나라의 번역가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1호 이중언어 강사가 되다

번역 일을 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번역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중 우리 구 다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와 엄마나라의 동화를 한국어로 번역해 동화집으로 만드는 '엄마나라 동화나라'라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 외에 중국, 일본, 베트남 국적 엄마들이 자국의 동화 10권씩을 번역했고 2012년 7월에 4번째 '엄마나라 동화나라'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2012년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이 국내 최초로 개설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한글을 제대로 몰라 학교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과 같은 중도입국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에 등록하여 9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부산 1호 이중언어강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첫 학생은 러시아 사할린 출신의 1학년생이었습니다. 비록 급여는 적었지만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부산의 학교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고 여러 학교에 배치되어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주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었는데 학교 적응에 다른 아이들보다 두 배로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르쳤습니다. 저의 첫 번째 학생은 벌써 18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가족들과 꾸준하게 연락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감사함을 표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 나라는 나의 제2의 조국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경찰, 법정,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번역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재미있고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얼마 전에는 출입국 직원 한 분이 러시아어로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던 중 문서의 진위여부 판단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국가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미 저에게 제2의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동화모음집'엄마나라 동화나라'10기 동기들과 함께

부산 벡스코 '러시아 쿠킹클래스'통역

부산일보 게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자원봉사

02 13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 되다!

호세인 모민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방글라데시

13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 되다!

앗살라무 알라이쿰,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글라데시 인사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사우디아라비아 인사말이지만, 종교적으로 방글라데시는 85% 이상이 이슬람 종교이기 때문에 이 인사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월 대한민국 국민이 된 호세인모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온 후 13년 만에 어떻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4번이나 단계별로 비자를 변경했는지, 한국 국적은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삶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1980년 방글라데시 찬드푸르시에 모이샤디에 있는 미르자푸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도인 다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치고 2005년에 회계학과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몇 개의 국제운송업체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계학과 전공이었지만, 대부분 컴퓨터 관련 관리자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회사 동료를 통해서 한국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등록을 한 다음 한국말을 배워서 시험을 보고 합격했지만, 시스템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바로 한국에 올 수 없었습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정보가 수정되어 2011년 8월 8일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후 첫 직장은 도금업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금작업이 위험하게 느껴져 다니던 업체를 그만두고 합판도장업체로 근무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마저 갑자기 부도나는 바람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모르고 친구도 없어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경상남도 김해로 체류지를 옮겼습니다. 북쪽보다 남쪽이 따뜻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김해에 오자마자 이슬람 사원에서 만난 고향 형님을 통해서 도장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원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곧 도장기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도 받으며 한국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례마을 재래시장에 채소를 사러 갔을 때 일입니다. 채소 파는 할머니에게 어눌한 한국어로 “호박... 얼마에요?”라고 물어보고 호박을 구입한 후 “캄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멀리에서 온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말을 하니 기특하네. 이 귤 하나 먹어봐”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 나라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빨리 배워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찾아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선생님들 덕분에 추가 수업까지 참여해 가면서 점점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시장, 길거리 어디에서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하였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한국어를 바탕으로 토픽 2급 자격도 취득하였지만 2년밖에 안 되는 유효기간 때문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2014년 사전 평가를 거쳐 2단계부터 시작하여 4단계를 마친 다음 E-9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5단계를 이수하고 나서 F-2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족과 같이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그 후 도장작업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송금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해 지점 관리자인 동시에 영업과 운영부 업무까지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컸습니다. 방글라데시인으로서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고객들까지 상대하면서 인도어, 파키스탄어, 영어 실력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평소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2022년에 한국자격교육협회에서 주관하는 벵골어와 영어 사법통역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경찰, 검찰, 법원, 노동부, 시청 등 여러 기관에서 통·번역 업무를 많이 해 왔고,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다문화 치안센터에서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해왔고 헌혈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경찰청과 자율방범연합회로부터 많은 표창장과 의총장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일반귀화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귀화허가 되었으니 2024년 2월 20일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 부산출입국·국적과 팀장님께 연락이 와 국적증서수여식 선서대표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믿어지지 않았고, 정말 꿈으로 끝날까 봐 무서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곧바로 아내와 고국에 있는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고 우리 가족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2월 20일 국적증서수여식! 이날은 저의 아들도 수반취득으로 함께 국적증서를 받는 날이어서 우리 가족에게 더욱 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2명 중 대표로 선서를 해야 하는데다 많은 신문, 방송, 라디오에서 취재를 왔기 때문에 엄청 떨리기는 했지만, 모든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받을 때는 너무

행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기쁜 경험을 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친구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노력하면 국적까지 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된 것이죠.

저에게는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또한 저의 조국인 방글라데시와 대한민국 사이에 국제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여행하고 싶어 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한 관광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방글라데시 학생들을 위한 유학사업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한국에 오기 전 방글라데시에서

2011년 8월, 한국에 첫 입국해서 입문교육 받을때

2011년 6월, E-7 특정활동비자로 (주)아텍에서 일을 하던 순간

2022년 2월, 부산디지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졸업식

2023년 5월, 한국 환경부와 방글라데시 환경부 양자 회담 공식통역사

2024년 2월, 대한민국 국적증서수여식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03 한국 문학과의 여정

티루앙 이렌
THIROUIN IRENE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프랑스

한국 문학과의 여정

저는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제가 말을 못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못 할까 봐 걱정하시던 부모님은 딸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한국어까지 배우고 한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라고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저는 2살 무렵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말도 잘 배우고,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를 더 깊이 공부하고, 그 아름다움과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제가 한국을 알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외국에서 살 생각조차 없었지만, 프랑스 성당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제 남편과 사랑에 빠지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한국어라는 그 아름다운 언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좋아했던 제가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국어인 프랑스어와 전혀 다른 문법,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취미를 넘어 대학 전공으로 선택하고 배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국어국문학 학사과정을 끝낸 뒤 1년 동안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과 혼인신고도 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생활을 처음으로 길게 경험하는 것이라서 적응할 것이 많았지만, 그 1년은 제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만큼 한국과 한국문화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저를 포옹해 주고 아낌없이 잘해줘서 제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봉사활동, 보드게임 동호회, 대학생활, 모두 다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토픽 시험을 처음 치르고 최고 등급인 6급을 바로 취득하였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남편과 다시 프랑스로 갔습니다. 한국문학 석사과정을 하면서 '한국 아동문학의 발생 과정에서 서양의 영향(1894-1937)'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특히 국민문학 발생 과정에서 번역물의 역할에 대해 많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점점 번역에 대한 궁금점이 커졌지만, 아직 번역가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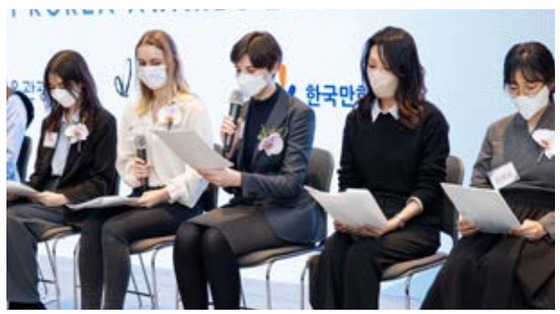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휘말린 남편이 프랑스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가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번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제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운영하는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그저 궁금해서 시작한 공부였지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휘 아래 한국문학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번역 작업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번역할 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사소한 디테일, 작품의 본성은 번역가만큼 자세히 탐색하고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아름다움, 그 특성을 다른 언어로 살리는 것만큼 위대하고 흥미로운 도전이 있을까요? 한 마디, 한 마디를 고민해서 번역하는 작업이 행복하고 뜻깊어 스스로 제 진로를 찾았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제가 어떻게든 한국 문학을 번역해서 프랑스어권 나라에 소개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겨울, 이유리의 단편소설 <빨간 열매>를 번역해서 번역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해 번역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바로 여러 출판사와 계약해서 번역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윤정은의 장편소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정소현의 단편소설집<너를 닮은 사람>, 그리고 연소민의 장편소설 <공방의 계절>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올해 출간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윤고은의 장편소설 <불타는 작품>을 번역하는 작업 중입니다. 고맙게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아서 번역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문학 공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번역아카데미에서 강의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학번역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교류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번역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역설적인 사실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어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게 되고 외국어에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남편도 못 만나고, 한국어도 못 배우고, 번역가가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한국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처음 갔을 때, 이 나라에 정착하고, 살아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된 많은 외국인도 그 매력에 사로잡혀,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국문학의 아름다움을 많은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04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의 결실

PUREVSUREN MAINBAYAR

국 적 몽골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의 결실

저는 몽골에서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호텔에 취직하여 매니저로 다년간 근무하던 중 결혼을 하게 되면서 2007년 11월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공항 게이트를 걸어 나오던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활발하고 씩씩한 성격이었던 저는 많은 친구들과 끈끈한 우대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저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도착 후 얼마 동안은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지인들께 인사드리느라 바빴지만 이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고민하던 차에 아는 분의 소개로 지역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 한국어 수업을 받으러 다니고 주한 몽골 여성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많은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계셨고 저도 모임에 참석하여 활동에도 하나하나 참여하면서 분위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성회에서 만나게 된 친구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지역행사에 둘이서 민속 무용을 소개하러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저는 호기심이 생겨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현재처럼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행사에서 처음 느낀 감동은 제 고향 몽골의 문화를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이를 통해 신기해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부심이랄까 왠지 뿌듯함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친구와 둘이서 이곳저곳 다문화 행사에 소규모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여기저기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온 민속 무용팀들은 인원도 많고 무용 솜씨도 뛰어나고 뭔가 짜임새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속에는 “우리도 좀 더 단합되고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알려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여성회 회의에서 저는 민속 무용팀을 좀 더 활성화 시키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모두들 저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뜻을 같이한 여러 사람들의 열정과 꿈과 희망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른 시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이민자와 학생 노동자 여러 명이 모여서 무용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우선 곡을 선곡하고 안무를 만들고 모두들 모여서 연습할 시간과 연습장이 필요했습니다. 모두들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시행착오는 팀원들이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일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에 지역의 다문화 센터와 사회봉사단체 여러 곳에서 감사하게도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연습장소를 마련해주시고 행사에도 불러주셔서 다양한 경험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마움 때문에 우리 팀은 더욱 열심히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7, 8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구성되어 조금씩 실력이 늘어갈 때쯤 우리 민속 무용팀은 지방에서 열린 민속무용 페스티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나라들의 무용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팀들은 벌써 여러 해 동안 페스티발에 참가했던 경험도 있고 실력도 상당해서 우리 팀은 조금은 위축되었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 다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실수 없이 무대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고 한동안 불리지 않던 우리 팀의 이름 ‘꺼머럴’이 호명되었습니다. 전국대회 대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노력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티브이 속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터로 나간

미담사례집

남편을 무작정 기다리고 홀로 집안에서 한숨짓던 몽골 출신의 자그마한 숙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용팀의 성공적인 결실에 힘입어서 저는 더욱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겨났고 부모가 되었고 서울시 외국인 대표회의 임원도 되고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서울시 대표도 되고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의 회장이 되고,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또한 기억에 남는 것은 미숙아로 태어난 사내아기가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복지기관에 연결해서 몽골과 복지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무사히 건강을 되찾았던 일,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던 몽골 한 살배기 어린아이가 화상 전문 병원에 연결해서 후원을 받아 치료를 받고 새 삶을 되찾은 일, 온몸에 80% 화상을 입고 재활이 불가능했던 40대 몽골 여성 노동자를 무상으로 치료해 주셨던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발벗고 나서서 함께 도와주셨던 노동인권센터 활동가분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청 직원 및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님들, 이 밖에도 열 건 이상의 사례를 나열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을 실천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저와 같은 길을 펼쳐나갈 후배들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펼쳐주신 선배님들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회장으로서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정책과 인권 등에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지금 또 해 봅니다.

05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길 바랍니다.

ZHANG WENYING

국 적 중국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길 바랍니다.

사진찍기와 봉사활동이 취미이며 울산광역시 SNS 서포터즈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국에서 온 ZHANG WENYING(장문영)입니다. 고향인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살아간다는 자체가 조금은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와 음식 습관이 다르기도 했고 낯선 땅에서 직장을 찾아서 돈을 벌고 모든 것을 홀로 헤쳐 나가야 했던 나날들을 생각하니 한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삶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장 먼저 와서 한 것은 '일자리 찾기'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어 주변 친구들의 소개와 추천도 받고, 각 지역마다 '교차로'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구인구직 광고란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여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구직활동을 하다보니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 교차로를 통하여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외국인인 저를 가족같이 생각해주시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항상 챙겨주시는 따뜻한 곳입니다.

일자리가 안정되자 다음으로 시작한 활동은 봉사활동입니다. 4년 전,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첫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할머니 계세요-?"하며 부르면, 마치 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한걸음에 달려 나오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곤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여까지 배달오느라 힘들지요~? 수고했어요."라고 남겨주시는 말씀 한마디에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덥고 추운 날씨에 걸어서 도시락을 배달하기 쉽지 않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보람도 느끼고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자율방범대 활동, 경찰·법원 통역 등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타인을 위하여 마음에서 우러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제 마음 가득히 차오르는 보람차고 따뜻한 감정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그 순간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또 다른 취미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한 컷,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한 컷. 언젠가부터 사진 찍는 것에 푹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사진을 찍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3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1회 사진 공모전(주제 :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미래)이 열렸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찍었던 사진 중에 고심하여 제출한 작품은 '부산 범어사의 가을 풍경'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다른 참가자들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발표가 난 순간, 대상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런 행운이 저에게 오다니 믿기지 않아 얼떨떨했습니다.

현재 저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각 나라 친구들과 함께 봉사를 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중구 협의회 사랑나눔봉사단에도 소속되어 빵 만들어서 기부하기, 버스정류장 청소, 헌혈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SNS 서포터즈로서 울산의 명소들을 탐방하고, 지역 축제에 대한 홍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은 울산 명소는 1) 울산대왕암, 2) 간절곶, 3) 장생포 고래 문화마을이 있으며, 추천하는 축제는 5월경 진행되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세계인의 날 맞이 글로벌 페스티벌, 9월경 진행되는 고래 축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울산을 여행하거나 거주하게 된다면 꼭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시작하게 된 봉사활동과 사진찍기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계기는 그 활동들을 하는 동안 제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보람차고 행복해서 기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낯선 한국에 와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죠. 한국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저처럼 몰입하면서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진공모전_대상

사진공모전_대상

사진공모전_대상

사진공모전작품_부산범어사가을풍경

자율방범대 활동

적십자사 빵나눔

직접찍은사진_240308

헌혈

직접찍은사진

직접찍은사진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06 글로벌 인재 장학금 수여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글로벌 인재 장학금 수여

사회통합전주협의회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대한민국과 본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모범적이고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2명을 선발하여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전주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판빈투안아잉(베트남), 문화기술학과 박사과정 양윤비(중국)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판빈투안아잉 학생은 2021.02.17.에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입국하여 대구광역시 소재의 계명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전주대학교에서 법학과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양윤비 학생은 2018.08.27.에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전주대학교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 후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2020.08.28.에 전주대학교 학사과정 유학생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학사,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문화기술학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한국어 능력이 탁월하여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본국과 대한민국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들입니다.

2명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여된 귀한 장학금은 사회통합전주협의회 강종대 회장(전주예수병원 사회사업과 과장)과 더세움병원(원장 양충용), 박영삼세이유외과(원장 박영삼)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판빈투안아잉과 양윤비 학생은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와 공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였는데 이렇게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더욱 고맙게 생각한다며 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과 본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고 교수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회통합전주협의회 강종대 회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후원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사회통합전주협의회는 2016년 3월 전북지역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출범하였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하여 결혼이민자 고향 방문 및 모범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07 한국의 삶

김소현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베트남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한국의 삶

어제 한국에 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 벌써 17년이나 지나갔네요~^^!!

안녕하세요. 아늑한 동네에서 알콩달콩 따뜻한 둥치 남편과 사랑스러운 공주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베트남 댁 17년 차 김소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국에서 형제가 많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자라왔고,
저의 형제 7명 중에 다섯째이어서인지 사랑도 못 받고 자랐어요.
모국에 있을 때 10대 청소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커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라고 마음먹었어요.
솔직히 옛날에 친정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마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친구들과도 같이 어울려 놀지도 못했어요. 가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어른이 돼서야 왜 그런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런 제가 어린 나이에 22살이 되었을 때,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 형제, 친구들, 모두 남겨 놓고 혼자 무작정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부터 무작정 탈출을 꿈꾸었어요. 평소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에 영향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새로운 나라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옛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문이다"라는 말씀. 거짓말처럼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인상이 좋고, 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두말없이 바로 결혼하겠다는 답을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한국 드라마 주인공처럼 시작한 것이죠.
2016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도착 후, 저의 결혼생활은 작은 시골에서 시부모님, 시아주버님을 모시고 남편하고 함께 농사를 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힘든 농사일 하며 살림하니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어린 나이 아침마다 5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날씨도 맞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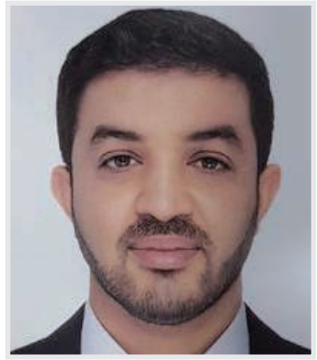
"참아야 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옆에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그나마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와닿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농사일과 포크레인 일을 하며 바빴습니다. 주로 제가 시아버지하고 같이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시골이다 보니 한국어학당도 없고, 주로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고, 일주일 1~2번 옆 동네 면사무소에서 한국어 공부를 다녔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데려다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개월쯤 임신을 하였는데,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인지 한 달도 안 되는 "콩알이"가 우리를 떠났고, 그렇게 일 년 후 다시 좋을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다 얻는 기분이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0개월 후 하늘에서 내려주신 공주님이 탄생하고,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론 걱정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모르는 내가 육아를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들... 딱 1달간 몸조리하고 다시 일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육아하느라 살림하는 몸이 너무 힘들었고, 2달쯤 되었을 때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봤더니 몸에 무리가 와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공주님도 탄생하고 또다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육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시어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려면 첫 번째,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저는 둘째를 낳고 아이가 두 살쯤 되었을 때 익산시내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트남에서 중학교까지만 다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1년 검정고시 과정을 합격했고, 시간이 없어서 익산에 있는 원광디지털대학교에 2015년 입학했습니다. 한국사람도 대학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외국인 유학생도

아닌 우리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어려울 것입니다.
대학교 1년이 지나 2016년 저에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건 바로 익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사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첫 직장이라 기쁘고, 설레고,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저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어요. 다행히도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무엇보다 같은 고향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이 지금 센터에서 일하며 하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어느덧 저의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한국 결혼이주여성과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남 일 같지 않아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일을 할 때 상담받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왠지 나의 과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고부갈등 상담할 때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경험을 들려주고 상담하다 보면 서로 같이 울기도 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년 근무하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니면서 2017년 하나은행 "행복가정상" 장관상 대상을 받았고, 2019년 대학교 졸업도 했어요.
제일 아쉬운 것은 내가 좋아했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어요. 2018년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님께서 편찮으신데 돌봐줄 사람 없어서 일을 그만두고 간병했어요. 시부모님 입원 퇴원 후, 저는 같은 해에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다문화 이해강사 및 경찰서 통역 요원으로도 열심히 활동했어요. 2019년 새로운 일이 찾아왔어요. 바로 익산에 있는 성요셉노동자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맡았던 일은 결혼이민자에 관련된 업무였는데, 180도 달라져 외국인노동자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일해보니까 여러 사람도 접근하고 다양한 사람도 알게 되었어요. 주로 제가 많이 했던 업무는 임금체불 사례가 많았어요.

농촌에서 일하는 친구들,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또는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 제일 안타까운 사례는 젊은 선원 조업을 나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사망하는 사고였어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좋은 사장님도 많이 뵈었지만, 나쁜 사장님들도 많았어요. 아쉽게도 2023년까지 근무하고 예산이 끊기는 바람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친구들은 아직 저를 기억해주고 안부도 전해주니 너무 뿌듯하고, 그동안 일했던 것이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와 같은 동남아 출신이라 차별, 구박 또는 무시당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차별이나 임금체불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도 한국사람처럼 평등하게 대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준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에요. 이곳을 너무 사랑하고 아주 소중한 가족이 있기에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의 꿈과 희망이자 저를 사랑해주고, 때론 든든한 남편이자 친구 같기도 한, 제일 소중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내 편입니다. 남편하고 가족들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08 "Closer Than Borders: 튀르키예 · 시리아 대지진 때 국적을 뛰어넘은 뜻깊은 결실"



BIA MOHAMMED MEBAREK (무바락)

국 적 알제리

"Closer Than Borders: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때 국적을 뛰어넘은 뜻깊은 결실"

2023년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현지 날씨조차도 좋지 않아 밤이 되면 영하의 추위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비상상황이었다.

BIA MOHAMMED MEBAREK(이하 무바락) 초빙교수님은 주한 터키대사관과 살람누리협회로부터 구호물자 수집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수거된 물품을 터키항공을 이용해 튀르키예로 보내 나눠줬다.

그 후 무바락 교수와 한국의 한 이슬람 학생회는 그 재난의 희생자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원조 물자를 모아 피해 지역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고민했다.

학생들은 원조 물자를 모으기 위해 홍보하면서 노력했다.

청주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고, 모두가 대의에 기여하기를 원했다.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 곳곳에 포스터와 전단지를 붙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구호물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지역 사업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분들도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다. 또한, 청주시의 네이버블로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인의 도움으로 이 캠페인을 블로그에 공유했다.

이뿐만 아니라 CBNU에 있는 국제 학생 센터의 도움으로, 한 디자인 회사가 독특한 방법으로 돕기로 했다. 그들은 그들의 직장에서 구호물자를 모으고 분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 회사는 식량, 의류, 담요 등 상당한 양의 원조 물자를 모았다. 그들은 이 캠페인과 개인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다.

그것은 옷 몇 상자로 시작해서 쌀, 식료품들의 가방, 곧 담요, 의약품,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들을 모으고 있었다.

이 캠페인의 성공은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 등 지역 사회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캠페인이 탄력을 받자 학생들은 300kg의 구호물을 모으는 목표를 세웠다. 게다가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총 1.5t의 구호물자를 모았다.

마침내, 캠페인의 결실이자 바램이었던 원조 물자가 튀르키예로 운송되었다.

이번의 계기로 느낀 바가 컸다. 나의 작은 생각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든 것은 국적,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침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예였다.

캠페인이 성공한 것은 나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노고와 헌신, 지역 사회, 구호물자를 기부한 사람들 덕분이다.

무바락 2 (지역사회 도움으로 모은 구호물자)

제보

KBS 뉴스

“외투부터 기저귀까지”…튀르키예 이재민 위한 온정 물결

입력 2023.02.14 (10:37)
수정 2023.02.14 (11:29)

930뉴스(청주)

09 재한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포근한 아저씨

LEE CHUAN MING

국 적 타이완

재한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포근한 아저씨

이전명 씨는 2016. 10. 1.부터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회통합협의회 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재한외국인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재한외국인의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 지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재한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행사로는 한국의 민속신앙 및 전통 먹거리 체험행사 지원, 평동 떡마을에서 추석맞이 송편 등 떡 만들기 행사 지원 등 관내 재한외국인들의 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재한외국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료로 차량 지원을 하며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며 낯선 외국인들이 친숙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다문화가정 대상 무료로 김장 나누기 행사 전액 지원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배추를 절여서 김장김치를 담가 겨우내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였고 대대로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김장김치를 담그는 풍습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와 여전히 겨울이 되면 월동준비를 하는 것처럼 가정마다 김장김치를 담근다는 것을 전해 듣고 무료로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제로타리3740지구 청주 리더스 로터리클럽과 회의를 거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 12월, 2023년 12월 총 2년에 걸쳐 김장재료 및 행사 관련 일체를 무료로 지원해서 관내 다문화가정들이 참여하여 김장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충북지역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자리를 마련했고, 2023년 12월에는 소외된 다문화가정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10 치매 시어머니와 함께한 10년

HAN YUEXIAN

국 적 중국

치매 시어머니와 함께한 10년

운명적인 남편과의 만남

나의 고향 중국 청도에서 우연히 여행 가이드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그 당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청도에서 관광 중이었다. 남자에 관심도 없던 나는, 우연히 남편을 소개받고 서로 첫눈에 반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남편과 5년 동안 긴 연애 끝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요즘 딩크족, 저출산으로 국가 위기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부부는 너무도 아이를 원하여 3명까지 낳고 싶었음에도 자연 임신이 안 되어 결국 시험관과 인공수정을 7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우울하고 힘든 시기였다.

시어머니 돌봄 역할

2015년부터 시어머니는 뇌경색, 치매,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다.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곁에서 돌봐 줄 사람은 나뿐인 듯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 속에 힘들고 도망치고 싶기도 했다. 주변에서 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을 때면, “내가 안 돌보면 오빠 힘들어서 안 돼요”하며 한결같이 대답했다. 내가 없으면 효자인 남편이 더욱 힘들어질 테니 시어머니와 나는 한 몸처럼 있었다. 날 의지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늘 시어머니 곁에 있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다. 2023년 8월에 시어머니를 천국에 보내고 더 잘 해드릴 걸 하는 후회도 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슬픈 감정이 앞섰다.

남편의 응원,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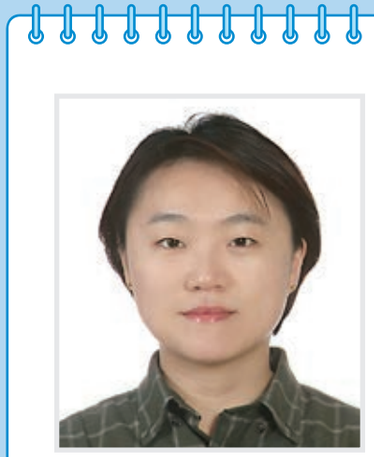
한국의 시댁 문화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남편이 항상 곁에서 날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언어, 문화체험, 전국여행 등 적극적인 도움과 사랑을 주어 힘들 때마다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었다.

중국어 자원봉사 활동

2016년 3월부터 시어머니 간병 외에 시간이 나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민원상담과 중국통역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중국 친구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또 출입국에서 한국의 멘토 선생님까지 만나 어려울 때면 정서적 도움을 받는 분도 생겨서 감사하다. 이제는 시간 여유가 더 생겨서 중국식당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민자네트워크도 가입하여 나처럼 새로 온 이민자들의 멘토가 되고자 열심히 활동 중이다.

11 나의 행복한 제주살이



YU BAOQI
위바오치

국 적 중국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돌이켜보면 한국문화를 처음 접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여름 방학 어느 날, 느긋하게 외할머니 집에서 채널을 돌리다 드라마 속에 재미있는 스토리에 무심코 빠져들었습니다. 가을동화, 한국과의 인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드라마 내용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궁금하게 되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 옆 반에 전학 온 한국 남매가 중국어는 서툴지만 어린 나이에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 고향인 옌타이에 한국인이 많다는 것도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 두 가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의 권유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말도 전혀 못 하고 한국 음식도 입에 안 맞아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 하면서 교수님과 한국 학생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원활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당부터 전공까지 4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학 생활은 청춘의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운이 좋게 바로 취직하게 되었고 취업 비자로 제주도에 더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못 봤던 제주도를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멋진 해안 경치를 볼 수 있는 올레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오름과 숲길, 제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제주 생활을 즐기던 중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그와 털털한 나는 2014년에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성격, 언어, 국적이 모든 것이 전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가족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곁에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 남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3살 연하인 제주도 토박이를 만나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는 평범한 연애 끝에 2017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연애는 달라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로 인한 의사소통, 비자발급 및 연장, 고부 관계, 금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타향에서 배로 외롭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산으로 인해 선천적인 왼쪽 귀 고도 난청으로 태어난 아들을 보며 한동안 매우 자책하고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가장 힘들 때 친구에게 다문화센터라는 기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나라 결혼이민자들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선배 결혼이민 언니들을 만나고, 고향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자녀 양육 정보들을 공유하고, 모국어로 수다도 떨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겨운 이민생활 중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 관계를 향상 시키고,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센터 선생님의 친절함과 고향 친구들의 열정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2023년 단순한 육아 생활에서 벗어나 영광스럽게도 나에게 큰 도움과 감동을 주었던 다문화센터에서 중국어 통번역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 통역, 경찰서 통역, 병원 진료 동행 통역 등 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 관련 서류 번역, 다른 이주자들 한국 사회 적응 및 안전한 정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던 만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게 돼서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주말이나 평일에 시간이 있을 때는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족봉사단 단원으로 바다 환경 정화 활동, 어려운

가정에 방문하여 주택 청소, 겨울철 김치 만들고 취약 계층에게 나눔 활동하며 외사계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레 시장 순찰, 노인 무료 급식 봉사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귀포시 다문화의용소방대 임명을 받아 이제 주택 소방 안전 점검, 길가 소화전 점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지킴이(수변 안전 요원) 등 활동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으로서 이 섬을 사랑하고, 엄마로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를 통해 나의 능력을 키우고 더 많은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2 자국민 한국생활 적응 도우미

김성미

국 적 한국

원국적 캄보디아

자국민 한국생활 적응 도우미

2007년에 한국에 결혼이민자로 오게 되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사람과 소통도 안 되고, 외국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외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 내겠다고 결심했다.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공부를 해야 했다.

겨울 감귤농사철에는 감귤농장일과 선과장일을 해야 돼서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였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 나에게 한국어를 공부할 시간은 귤 농사가 없는 여름뿐이었다. 여름에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 여름에 낮에는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도 하며 방문교육선생님을 찾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공부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들을 수 없는 농사철에는 같이 농사를 도와주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대한 한국어를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 결과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고, 2012년 세쌍둥이를 출산하였다.

양가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이 다섯 살 정도 되고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하고 나니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지인의 소개로 2018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역지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생활을 하며 겪는 문제들을 보니 남 일 같지 않았다. 10년 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한국에 오신 캄보디아 근로자나 결혼이민자들의 고충을 들으면 처음 내가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나 더 열심히 하게 된다. 한국생활에 열심히 적응하고 쌍둥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사회구성원으로서 내 역량을 키우고 싶어 올 2월 직장에 취업하게 되며 경제적인 자립도 하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귤농사도 지으며 직장과 일을 병행하면서 매일 보람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 앞으로 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할 것이다.

캄보디아 자조모임

기존에 있던 캄보디아 자조모임의 총무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총무의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다. 총무를 2022년도에 추천받아 열심히 일하다 보니 2024년 1월 회장 취임을 했다.

제주도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역 봉사나,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병원 방문 시 동행하여 통역을 진행하며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고 있다.

자조모임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날행사축제는 200명이 넘는 캄보디아 사람이 모이는 큰 축제로 자리잡혔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여러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모여 한국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이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축제를 즐긴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캄보디아 자조모임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13 한국어 사랑으로 시작된 나눔의 기쁨

전예진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베트남

한국어 사랑으로 시작된 나눔의 기쁨

한국과의 첫 만남

"강추위와 하얗게 내리는 눈", 더위에 익숙해져 있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맞이한 풍경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어린 나이였지만 나름 각오를 다지고 가족의 배웅 없이 혼자 베트남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외국은 고사하고 고향조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기에 스스로의 선택이라 위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불안과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세상, 앞으로의 삶에 대한 호기심과 희망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어서 용감했나 싶기도 합니다.

한국에 적응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음식 때문에 고생한 기억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남편이 배달음식을 시켜주거나, 다국적 마트에서 동남아국가 식자재를 많이 사다 주어서 요리해서 먹었는데, 시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국 음식 조리법이나, 맛에 금방 익숙해져 지금은 여느 한국인과 다르지 않은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때만 요리해서 먹는 정도랍니다.

나의 한국어 사랑

한국에서 살려고 왔으니, 한국어를 최대한 빨리 습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남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절실했고, 주변에서 들리는 낯선 외국어가, TV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남편도 답답했는지 제가 빨리 한국어를 습득하길 원하여 다문화센터에 같이 가서 등록한 후, 여러 나라에서 온 비슷한 상황의 분들과 교류하면서 차츰 한국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한국생활이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에 임신을 하면서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하는 신기함, 불안, 기대 등등 복잡한 감정을 살짝 느꼈지만, 그럴수록 뭔가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엄마가 한국말이 서툴면 아무래도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컸습니다.

첫째를 낳고, 2년 후 둘째를 출산하면서 육아와 살림을 동시에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도 한국어 공부는 계속하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한국어 공부는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한국말이 늘수록 남편과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같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TOPIK 점수 취득 과정과 더불어, 검정고시도 차례대로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았구나!' 하는 탄식도 들었지만 반대로 성취감도 더할 나위 없이 컸습니다.

하나를 성취하면 다른 목표가 생기는 것!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귀화시험도 통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도 졸업했습니다.

나눔의 기쁨

처음에는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동향 분들이나 타국에서 오신 분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여러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했지만,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움을 받았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에 처음 온 결혼이민자를 돕기 위한 멘토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가 및 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동료 직원분들께서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십니다.

열심히 사는 저의 이런 모습을 좋게 봐준 지인의 소개로 2019년부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통역과 간단한 서류작성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활동을 병행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이 큰 만큼 저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계속 힘과 보탬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노력하고 배우면서 그 부분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모든 활동에 남편과 아이들의 응원이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꿈

베트남도 현재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아주 가끔 고향인 베트남에 방문하면 '이곳이 내가 살았던 곳인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한국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사이버대학에서 복지사를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공부가 어려워 버거운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금씩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한국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심한 것이 삼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일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계속하다 보면 그 '작심삼일'이 '작심십일', '작십백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힘들어서, 귀찮아서 포기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초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 진행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

14 아프간 여성 의사를 꿈꾸며

LODIN KAYNAT

국 적 아프가니스탄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아프간 여성 의사를 꿈꾸며

나의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환경을 떠나 2021년 한국에 온 카이나트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청학동에 있는 함박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위험과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간특별기여자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2년 6개월 동안 살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에는 한국어도 열심히 안 했고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겠지'하고 맨날 놀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말도 안 통하고 수업시간에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학교에 있는 '한국어반'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아직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언어로 인한 부모님의 불편함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언어 문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등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끈기와 노력, 열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저의 본국 아프가니스탄은 여성들이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성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시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탈레반은 특히 군인 또는 외국인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때문에 학교를 혼자 못 다니고 부모님께서 데려다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중등부 교육부 장관상 은상 수상

작년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2023.09.16.)」에 학교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가니스탄 말과 한국말로 저의 꿈에 대해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 제 꿈인 '부인과 의사'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통과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예선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후 바로 본선대회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선대회에서는 예선대회와는 달리 발표 후에 심사위원에게 모국어와 한국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어렵고 준비하기 힘들었습니다. 모두 인천 지역 안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함께 모여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중반부를 넘기며 기다렸던 제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발표를 했지만 제일 걱정했던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국어 질문은 쉬워서 자신있게 대답을 하고 심사위원을 보니, 파슈토어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손가락 '따봉'을 날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질문은 어렵기도 하고 많이 긴장도 되어 만족스럽게 대답을 하지 못해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뒤에 한국어 선생님께서 2등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선대회를 2등(우수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은「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였습니다. 전국대회는 전국 각 지역에서 저처럼 본선대회를 통과한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여서 모두 다 너무 잘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과 저는 매일 만나서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학교 강당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발표 연습과 질의응답 연습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과 동영상을 찍어서 함께 보면서 발음과 동작을 고쳐나갔고 저도 매일 원고를 읽고 녹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기다렸던 전국대회 날이 되었고 부모님과 저는 아침 일찍 서울 대회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정말 전국의 많은 외국 학생들이 모였고 함께 사진도 찍고 축제 같았습니다. 드디어 다른 참가자의 발표가 시작되고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니 조금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내용도 좋고 발음도 좋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왔고 무사히 발표를 끝내고 심사위원 질문에도 잘 대답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발표가 끝나고 나니 기분도 좋았고 상도 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순서가 끝나고 저는 계속 시상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 받는 학생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데 제 이름이 언제 나올까 '두근두근' 했습니다. 동상 부문에서도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아 점점 긴장이 되면서 선생님과 저는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은상에서 "축하합니다. 교육부 장관상 은상! 루딘 카이나트 학생!" 제 이름이 불렸고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단상 위로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지영 한국어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지만, 한편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스로 한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신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인천청 사회통합협의회에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주시며 격려해주셨습니다.

나의 꿈 '부인과 의사'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향의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보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 되고 싶다고 하면 남들로부터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 등의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과 도움을 나누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의사의 부재로 많은 여성과 여자아이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성적은 물론이고, 의료 관련 지식도 습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배워야 다양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모국어인 다리어와 파슈토어를 계속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와 한국어, 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고 긴 길 위의 많은 걸림돌 때문에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꿈을 이루고 있는 제 모습을 매일 상상합니다. 더 큰 세상에서 빛나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0년 후 꿈을 펼치는 제 모습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영어), مننون(파슈토어), ขอบคุณ(태국어), 감사합니다(한국어).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15 따뜻한 나라 '한국'이 내게 준 용기와 희망

전미림

국 적 중국

따뜻한 나라 '한국'이 내게 준 용기와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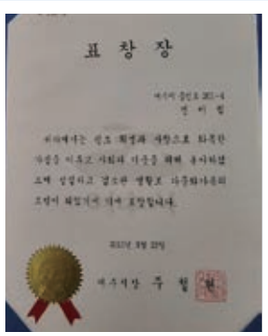


표 창 장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19살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중국의 나이키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장님은 한국 분이셨고,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어리다며 어린 나이였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 한국을 떠올리면 이미지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6년 동안 공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옷 판매원을 시작했습니다. 판매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떠나 한국에 산다는 건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낯선 땅을 밟았을 때의 첫 마음은 외롭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었던 건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태도와 말이었습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동안 나라의 문화, 음식, 기본적인 일상생활들이 마치 내 앞에 놓인 장애물들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매 순간 제 옆에서 저를 이끌어 준 분들이 있었기에 11년째 '행복한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섯 번의 시험관으로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출산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그때엔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컸지만, 남편의 노력과 배려로 그 시간들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올해 11살이 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방학 기간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동네 또래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재미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국어로 설명해 주는 모습은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나라, 저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사람이기도 하니까요. 한국과 중국, 나라와 문화에 대한 경계와 편견 없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이해하고 물들게 하는 것이 엄마로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를 위함도 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참 말을 배울 시기에 아들과 한국어로 나눌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못 해줬던 게 가슴에 남아 많은 표현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여수출입국사무소 민원실 자원봉사는 한국에서 첫 사회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인 민원인들이 오면 통번역은 물론, 한국인 민원인들, 직원분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늘려가며 조금씩 활동 영역도 넓혀갔습니다. 명예출입국공무원에 위촉됐을 때 처음 한국에 온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행사 참여와 멘토 프로그램 등을 참여하며 이민자들이 한국에 친근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은 아니지만 어디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8년도에 여수시 여성상담센터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등 통역활동도 했고 여수시 해양경찰서에서도 이와 같은 중국어 통역 봉사를 했습니다. 중국문화를 알리고 결혼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한국에 정착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받은 따뜻한 정을 나누어주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해양경찰서 통번역 양성과정을 최초로 교육수료하여 예전보다 더 전문적인 이민자 통역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수 YWCA에서 주최한 한글 글쓰기로 우수상을 받았고 여수시장 표창장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준비했던 한국어능력시험도 5급을 취득하며 전보다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후로 커피바리스타와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도 했고 지금은 한국음식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한식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16 여수출입국 행복나눔 봉사단~! 사랑을 나눠요~^^

여수출입국 행복나눔 봉사단

여수출입국 행복나눔 봉사단~! 사랑을 나눠요~^^

여수출입국 행복나눔봉사단은 대부분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되었고, 현재는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이고, 직장을 다니는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도움과 관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에 이르게 된 점을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일원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봉사단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몽골, 러시아 출신의 이민자로 각각 국적별 커뮤니티에서도 봉사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고, 후배 이민자들의 길라잡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여수출입국 행복나눔봉사단이라는 이름 아래 23년도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 활동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수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동여수노인복지시설'에서 급식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복지시설은 노인분들 건강, 취미활동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내 노인분들의 핫 플레이스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매일 200여 명의 노인분들께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을 위해 여러 기업들이 식자재 등을 후원해주고 있었고, 요일별로 음식을 만들고 배식하고 식당 정리까지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행복나눔봉사단도 나름 베테랑 주부라는 자부심에 일손이 제일 부족한 요일에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봉사 당일날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장착하고 식당에 가보니 정말 베테랑 언니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고, 일손이 부족한데 이렇게 와주었다며 친동생처럼 너무 고마워하셨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식자재들도 손질하고 엄청나게 많은 밥과 국, 반찬을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매일 이곳 식당을

찾아주시는 200분의 점심식사는 11시30분으로, 저희들은 선배 봉사자분들과 함께 9시30분부터 김치도 썰고, 파도 다듬고, 식탁도 닦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배식시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찾아주신 노인분들을 보니 고향에 계신 저희의 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했고, 식기를 들고 식사를 받아가시는 노인분들께서 연신 고맙다며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무사히 점심급식 봉사를 마치고 선배 자원봉사자 언니분들과 함께 식사하며 주부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땀 흘린 뒤라서 식사도 꿀맛이었습니다. 봉사자 언니분들은 저희가 많이 서툴지만 언제든지 꼭 다시 봉사해 줄 것을 부탁하셔서 저희들도 흔쾌히 수락하고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식 봉사활동 외에 사회통합협의회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신 쌀과 김치도 동여수노인복지관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도 바다도 모두 파랗고 바람은 조금 불었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여수에는 웅천이라는 신도시에 인공해변이 조성되어있고, 시민들이 자주 찾아와 산책도 하고 야영도 할 수 있는 멋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방문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들과 모래 해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쓰레기 줍는 해변 환경정화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이런 활동은 플로깅(Plogging)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들 단체방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했고 여수출입국 이민통합실 성반장님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웅천 인공해변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이곳은 요즘 시민들이 맨발로 모래 해변을 자주 걷는 곳이라 신경이 쓰이는 곳으로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치웠습니다. 이어서, 상가쪽으로 이동했는데 담배꽁초와 일회용 컵이 많았습니다. 집게를 이용해서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르신이 저희가 입고 있던 조끼에 법무부라고 적힌 걸

보시고 “왜 법무부가 이런 곳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왔고 지금은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움받은 것이 많아서 이제는 저희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사람들 보다 더 낫다면서 저희에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주우며 지나온 곳을 보니 깨끗한 것이 너무 좋았고, 기회가 되면 또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는 사회통합협의회 부회장님께서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 오셨고, 인근 중식당에서 점심도 사주셔서 같이 활동한 회원분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결혼이민자들이 처음 한국생활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기에 회원들끼리 더욱 뭉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고 있고, 후배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와 주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이제는 저희들도 주변에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며 성공적인 이민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17 이주민을 위한 달빛

YIN NWE SOE

국 적 미얀마

이주민을 위한 달빛

2021년에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진 나는 2022년 3월 한국에 유학을 왔다.

미얀마에서 한국어과를 나온 나에게 한국어는 낯설거나 어려운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생활을 그리 걱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타국에서의 삶이란 언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많았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생각해 보았다.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도 이렇게 한국에서의 삶이 힘든데, 한국어를 못하는 미얀마인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고 결심했다.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어야겠다!"

1.

처음에는 SNS를 통하여 미얀마인들에게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대상자는 대부분 근로자들로, 고용주나 정부기관과의 소통이 어려운 미얀마인들을 찾아가 도와주었다.
또,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과 시흥에 있는 학습센터에서 아이들 돌봄 등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2.

내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이 없을까 알아보던 중, 2022년 10월에 미얀마 재정착난민을 위한 멘토를 뽑는다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공고를 보았다. 미얀마 내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본국을 떠나온 미얀마 사람들에게 통역뿐 아니라 한국생활 적응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지원하였고, 8기 재정착난민의 멘토활동을 거쳐 현재 9기 재정착난민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착난민들에게 한국어 교육부터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것들, 취직, 병원진료 등 그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든 함께하며 지원해주었다.
특히, 한국에 와서 출산을 한 가정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 정기 진료 및 출산을 비롯하여 아이 예방접종과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 것까지 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자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지원해주었다.
재정착난민 중에는 미얀마어가 통하지 않는 가족도 있는데, 그 가족은 직접 통역 관련한 도움을 줄 수 없기에 언어가 통하는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처리를 해준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한국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는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나의 도움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재정착난민 멘토라는 역할이 나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고 있어 행복하다.

3.

재정착난민 멘토 활동을 하는 중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미얀마어 상담사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곳에서 나는 재정착난민뿐만 아니라 미얀마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및 통역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시흥시 내에서 미얀마어 통역이 필요한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였다.
현재는 복지센터 상담실 운영이 종료되어 상담업무를 못 하고 있어 아쉽지만, 시흥시청 시사우(시흥에 사는 우리들 :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을 통해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외국인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내 고향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시작한 활동들이었는데, 열심히 하였더니 2023년 말 외국인 주민의 한국생활 적응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하였다고 시흥시의회의장 표창장도 받았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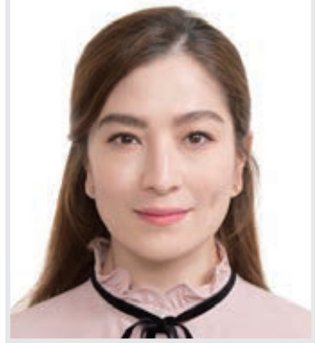
많은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나를 그들이 달빛으로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타국에서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달빛이 되어 그 길을 비추어주고 싶다.

시흥시 경찰서에 다문화 가정 나눔 행사에 통역 지원

재정착난민 가정 출산 지원

시흥시의회의장 표창장

18 우즈베키스탄 소녀의 다양한 경험



KAMILOVA SHOKHIDAKHON

국 적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녀의 다양한 경험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서희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에 온 지 벌써 14년이 되었네요. 2010년 한국인 남편이랑 결혼하여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전혀 몰라 대화도 불가능하고 주변에 우즈베키스탄 친구들도 많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니 마음이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었을 때 다문화가족이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 여자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다.! 한국 국적을 따면 이혼해도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 결혼을 한 것이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랑 결혼한 모든 여자들이 ‘돈’ 때문에 한국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여자들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잘 살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나이는 어렸지만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2010년 두려움과 설렘으로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을 아예 모르는 저에게 남편은 ‘찌개를 끓이다’라는 말을 ‘찌개가 와그르르~ 와그르르~ 라고 표현하며 한국어를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직접 요리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익숙하게 잘할 때까지 기다려준 남편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2급을 받게 되었고 1년 만에 다문화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문화도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한국문화에 대해 신기했던 것, 이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신기했던 것은 요리할 때 가위를 사용하는 것과 할머니들의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음식에 가위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저도 요리할 때 가위가 없으면 힘들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버스를 탔던 날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는데 할머니들의 모두 똑같은 짧은 파마머리 스타일을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한번 파마하면 오랫동안 편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러신 거야”라고 하더군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역시 뭐든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한국생활이 정말로 좋고 행복했습니다. 언제든지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싸고 맛있는 음식들, 온라인 쇼핑, 다양한 한국화장품 등등 정말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여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받았고, ‘첫째를 키우고 대학에 가자’라는 생각을 하던 중 둘째가 생겨 꿈을 잠시 미뤘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로부터 “엄마가 외국인이야,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네”라는 말을 들을까 봐 갑자기 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고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즈베키스탄 문화, 음식, 의상 등을 알려주고 체험하면서 즐겁게 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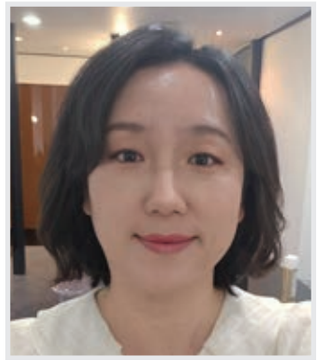
그러던 중 용인시청에서 '용인시 일일 시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통역 요청이 들어왔고, 경찰서에서 통역 및 치안 봉사활동을 하며 치안봉사단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10년 이상 이민자네트워크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은 회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아 더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통역, 민원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독거 어르신들의 집안정리 봉사활동, 아프간특별기여자 멘토링, 지역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오카리나 선율을 들려주는 음악 봉사활동,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 사회통합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 해피스타트 합창단 활동 등등 ...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봉사는 향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퍼뜨리다 보면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사랑을 나누면서, "외국인이다! 언어를 잘 못 하네! 외국 여자들은 돈 때문에 한국에 왔어!"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19 사회통합의 마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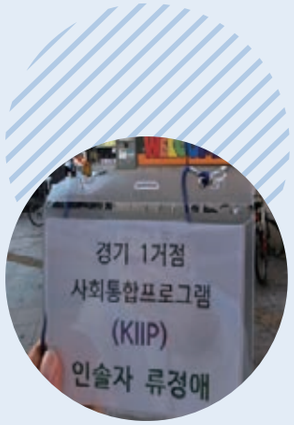


류정애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중 국

사회통합의 마중물



저는 2008년에 직장에서 만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및 당당한 한국인으로 자녀를 자신 있게 양육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심화 과정까지 이수한 후 2017년 7월에 귀화 시험에 합격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시어머니와 남편, 딸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국적 취득 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이 되었습니다. 민원 안내 및 통역 봉사를 하면서 찾아오시는 외국인분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 및 이수 혜택을 설명하고, 참여하도록 도와드리며 해피스타트 합창단 단원으로 법무부 중요 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생활에 적응했음에도 나태해지지 않고 자기 계발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외국인 주민 다누리꾼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외국인 주민들에게 수원시에서 살면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 받을 수 있는 혜택, 변화하는 최신 정책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방송통신대에도 편입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각 주민센터 통반장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선입견, 이질감, 거리감을 줄이려고 노력하였고, 결혼이민자로서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소개하며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하며 타문화도 수용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사회가 되는데 일조하여서 수원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꾸준하고 헌신적인 사회봉사 노력 끝에 2022년 1월에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 1거점 전담 인력으로 채용되어 이민자들이 체계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나의 적성에 맞고 보람을 느끼면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생겨서 매우 기쁘고 책임감 또한 무겁지만, 센터에서 저를 전담 인력으로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평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을 볼 때마다 저의 첫 모습 같아 그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단계별 필요한 학습 방법 및 정보를 공유해주고 센터에 와서 교육받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집에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교육에 참여하셨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부부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마다 저를 찾아와서 네 명의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면서 현재 한국 정부 도움으로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었고 그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덕분에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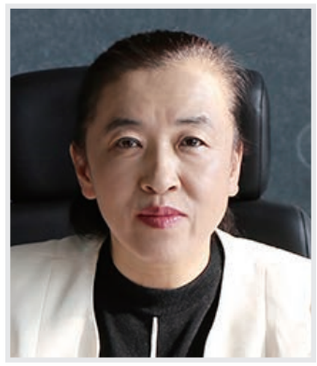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 등 이슬람교 이민자분들 또한 센터에서 제공한 정규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이곳은 다양한 문화 및 종교를 존중해주고 수용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잘 배워서 법규를 잘 지키고 열심히 한국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 음식을 담은 도시락을 챙겨와서 휴식 공간에 함께 모여 앉아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한국어로 가족 이야기, 회사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화기애애한 모습만 봐도 저는 여러 나라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 다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르고 든든합니다.

중국에는 "家家都有难念的经. 집집마다 어려운 일이 하나씩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들은 우리 모두 함께 서로 도와주면 해결되고 나아집니다. 적어도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아무 걱정 없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면서 비자 연장이나 변경도 할 수 있고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도 하면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양해규 센터장님께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환영하고,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언어와 문화 등을 잘 배우도록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함께 소통하며 통합된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나아가도록 센터는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 1거점 전담 인력으로서 사회통합을 계속 발전시키고 열심히 배우면서 이민자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든든한 한국 이민자의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20 베풀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화란

국 적 중국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베풀 수 있어 행복합니다

따뜻한 손길, 사랑의 나눔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존 홀랜드의 명언이 한화란 대표의 삶을 잘 표현하였다. 재한중국인 한화란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는 기업인으로, 한국에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인하여 적응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주변의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과 격려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과 배운 것들은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분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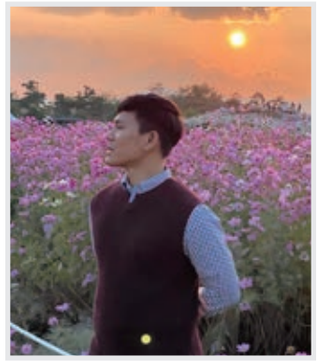
그런 마음으로 부천 심곡동에 위치한 부동산 업체의 사장과 함께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5명의 사업가가 모여 사랑봉사단을 결성했다. 사랑봉사단의 활동을 통해 그 감사한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 특별한 명절에는 사랑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부천시에 있는 독거노인과 소녀소년가장 30여 호에 해마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단원들은 명절마다 자기 모금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어르신들에게 정성 가득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한화란 대표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에 보답하면서, 더 많은 분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고자 하고 있다.

지난해 어버이날에는 부천에 위치한 길 차이나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오전 8시부터 음식을 준비하여 13시까지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효도 밥상으로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려우신 독거노인님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손수 배달하여 드렸다. 맛있게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진정한 참 봉사라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곤 한다. 초복에는 삼계탕, 추석에는 소불고기, 구정에는 사골 떡국을 만들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에게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찾아 한 번씩 정기적으로 후원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매년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21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가교가 되어



MUHAMAD KHALID BIN ISMAIL

국 적 말레이시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가교가 되어

2007년 말레이시아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고려대학교를 졸업 후 한국의 굴지 기업 삼성에 입사하여 한국의 문화를 많이 배우며 진정한 한국 사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지만, 외국인으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한국인과 결혼 후 저와 제 아내처럼 고국과 한국이 더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말레이시아인에겐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알고 싶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해외수주영업을 담당했던 경험으로 한국의 유수한 기술을 알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가 날것으로 생각되어 여행업과 무역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말레이시아의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한국의 기술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기술력 있는 제품에 대한 공급 또는 벤치마킹을 위한 정부기관의 방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한국 방문을 문의하였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와 한국 간의 문화 차이와 언어장벽으로 인해 이전의 거래에서 이미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거래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들도 많았기에, 다시 관계 개선을 한다는 생각으로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해 풀어나가는 영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좋은 결실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가질 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를 꾸준히 잘 유지해오다 보니 말레이시아의 사업가, 정부인사들이 한국으로 방문하여 저희 여행사가 의전하는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배운 한국어 실력을 발휘하여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줄이고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열심을 다 하다 보니 서울 명예시민도 수상하게 되고 서울 관광대상도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변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하면 칼리드라는 신뢰를 얻게 되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대해 문의가 생길 때,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문의가 생길 때, 양쪽으로 저를 찾아주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 국가의 다양한 방송매체에도 출연하여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고 외국인으로서도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을 보람된 일로 보답하고자 본업 외에도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였고, 한국 정부기관에서 국내 거주 말레이시아인을 위한 통번역사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 역량이 되는 한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미약한 저에게 희망이 되어 준 말레이시아와 한국 두 국가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서울시 명예시민 수여

한국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방송 출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활동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봉사 활동

말레이시아 국영방송 출연

한국 농협 회장님 말레이시아 방문 통역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22 카이스트 학생 동아리 Silver Lining의 봉사활동

Thio Johanna Aurelia

국 적 인도네시아

카이스트 학생 동아리 Silver Lining의 봉사활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입학하기까지, 한국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밟아온 모든 과정들은 한국 정부와 학교 측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보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자 2022년 가을학기에 한국 소외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개설된 국제봉사 동아리인 실버라이닝에 가입했습니다. 대전의 여러 보육시설과 협력하는 실버라이닝은 단순한 교육 경험을 넘어 아이들이 문화 다양성을 조기에 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매주 몇 시간씩 보육 시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2023년에는 실버라이닝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누리지역아동센터, 열두광주리지역아동센터, 법동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던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서 각 센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문화 교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논의 끝에 법동청소년문화센터에서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특별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 직접 경험하면서 더 큰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정식 어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했습니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자 2023년 하반기에는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성우보육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첫 수업 후, 원생들이 저와 봉사자들에게 수업이 일주일에 몇 번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번이라고 대답하자 원생들은 슬픈

표정으로 수업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감사한 마음을 넘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버라이닝에 속한 다국적 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또한 실버라이닝의 설립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학생들이 지역주민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가족 그룹 및 랜덤 점심식사 그룹을 개설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단짝 친구나 파트너를 찾은 학생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결과적으로 실버라이닝에서 경험한 일들은 저 자신에게도, 공동체 차원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감사를 전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문화를 교류하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실버라이닝이 이룬 작은 결실들을 되돌아보며,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뜻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실버라이닝의 꾸준한 성장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큽니다. 함께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삶에 희망이 되어 상호연결된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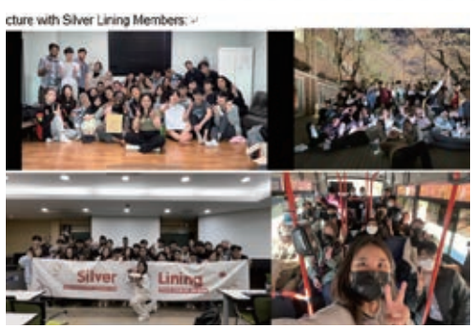
Embarking on my journey in South Korea to pursue research, from high school to becoming a university student at KAIST, was possible with the support I received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school.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I felt compelled to give back and express my appreciation. This determination led me to join Silver Lining in the fall semester of 2022, a newly established international volunteering club dedicated to enriching the lives of underprivileged communities in South Korea. Collaborating with Daejeon childcare centers, this club's focus extended beyond mere educational experiences to fostering early exposure to cultural diversity among children. With a commitment to serving society, I dedicated several hours each week to volunteering at these centers.

As the calendar turned to 2023, I found myself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leading Silver Lining. Building upon the existing programs with Hanuri Child Center, Yeoldu Gwangjuri Center, and Bupdong Teenage Center, I strived to expand the impact further. Designing customized programs for each center became a strategy to deepen our societal reach. Introducing cultural education appeared as a promising initiative to induce multiculturalism awareness at a young age. After some discussion at Bupdong Teenage Center, appointed Silver Lining members with unique cultural backgrounds were able to incorporate short sharing sessions at the end of each class. Students gained interest in knowing more through first-hand experience learning about different countries. This approach not only enriched the educational experience but also bridged the gap for children in the community who lacked access to formal language institutes due to socioeconomic disparities.

After gathering positive responses in the cultural education program, the second half-year of 2023 was spent to expand the program application. Applying the new program at Sungwoo Orphanage (성우 보육원) became the new project. At the end of the first class, the students asked me and other volunteers how often the class would be offered in a week. As I answered once a week, with sorrowful faces they negotiated to hold the class more often. This kind of encounter is what drives me to serve more beyond the grateful heart.

Last but not least, building solidarity with multinational students in Silver Lining was also one reason the club was established. Expecting to see deeper bonds between local and international students, small family groups and random lunch groups were made. In that event, some students found new best friends and partners in exchanging thoughts. These are some small steps to realize the meaning of living concurrently in a globalized environment.

In conclusion, my journey with Silver Lining has been transformative, both personally and communally. What began as a desire to express gratitude has developed into an impactful platform for cultural exchange and community enrichment. Reflecting on the small steps taken within Silver Lining, I was reminded to not only bridge cultural divides but also nurture meaningful connections beyond everything. Looking ahead, I am filled with hope and optimism for the continued growth of Silver Lining and the impact it will have on the communities we serve. Together, we can continue to be the silver lining in each other's lives, revealing the path toward a brighter and more interconnected future.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23 KAIST 국제화 및 글로벌캠퍼스 문화 조성에 공헌한 유학생

SAN JUAN YSA MARGARITA

국 적 필리핀

KAIST 국제화 및 글로벌캠퍼스 문화 조성에 공헌한 유학생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리더십과 봉사 정신: 주도적인 활동과 값진 기여로 국제사회와 대학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필리핀 국적 카이스트 학생”

2022년 도전부문과 2023년 창의부문에서 카이스트 글로벌 리더십 포상을 수상한 Ysa는 진정한 학생 리더이자 열정적인 봉사자의 본보기입니다. 카이스트는 대학의 핵심 가치에 따라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하고 도전을 수용하는 봉사자의 마음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수상 후보로 지명되고 상을 수여받은 것은 그녀의 의지, 헌신, 배려심, 그리고 이타적인 성품을 보여줍니다.

Ysa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8월에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모국을 떠날 수 없었기에 원격 수업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학습 환경으로 인해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Ysa는 부정적인 것들을 생산적이면서 의미있는 활동들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첫 학기에 카이스트 국제 학생들을 위한 단체인 KISA에 가입했고, 이벤트 부서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본 부서에서 행한 값진 기여 외에도, 국제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연말 행사인 “Aloha 2021”의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녀의 부서와 함께, 카이스트의 “국제교원 및 학생 지원팀(ISSS)”으로부터 앞선 성과에 대한 찬사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KISA 임원들과 멤버들에게 그녀의 뛰어난 직업 윤리와 잠재적인 리더십을 인식시켰으며, 학교를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Ysa는 다음 학기 부서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온라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Department Days’는 그중 하나로, 카이스트 내 다양한 학과의 강연자들이 제대로 된 대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없었던 신입생들에게 수강신청과 같은 큰 결정을 도와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Online weekly game nights’ 또한 참가자들이 서로 즐겁게 교류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Ysa는 3학기에도 KISA 멤버로서 계속해서 그녀의 부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직 안에서 더 높은 직책을 맡을 수 있었음에도, 이전 팀원들에게 조언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이는 그녀의 겸손함과 이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같은 학기에 건설및환경공학과와 산업디자인학과를 복수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 리더로서의 명백한 능력과 자질을 감출 수 없었고, 다음 학기에 KISA 회장으로 지명 및 선출되었습니다. 그 당시 Ysa는 아직 필리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그녀가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책임감을 발휘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장직을 맡고 몇 달이 지난 후, Ysa는 마침내 D2 비자를 받게 되었고 카이스트에서 수많은 행사와 활동을 현장에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22년 국제 음식 축제로, 17개의 음식 부스를 통해 모든 카이스트의 일원들이 국제 학생들의 모국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Ysa는 대학의 각 국가 대표들과 더 많은 소통을 도모하고, 조직의 의사소통 플랫폼을 개선하며, KISA의 존재감을 인식시키고, 또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KISA 임원들과 멤버들, ISSS, 학부 학생회 및 대학원 학생회와의 회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KISA의 업무 외에도, Ysa는 카이스트의 국제 봉사 단체인 ‘Silver Lining’의 멤버가 되었으며, 지역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린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와 과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그녀는 이벤트 팀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 힘썼습니다.

두 번째 회장 임기 동안, Ysa는 여러 조직, 행사 및 업무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카이스트 국제협력팀의 YouTube

채널 호스트로 선정되어 다양한 국가 커뮤니티 학생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이 채널은 국제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데 국제 커뮤니티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Ysa는 국제 학생들이 자신들이 문화 발표 활동, 공연, 현지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모국을 알리는 카이스트 원 (KAIST ONE) (Overseas Networking Exchange)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Happy College Life 와 Exciting College Life” 수업의 신입생 지도관으로 선발되어 신입생들이 카이스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왔으며, 외로움을 느끼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느낄 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KISA 회장 임기를 마치기 전, 동료 멤버들과 함께 카이스트 총장님을 만나 뵙고, KISA와 국제 학생들의 고충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월 생활비로는 일상 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아르바이트 기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카이스트는 Ysa가 맡은 모든 업무의 성과를 인정하여 2년 연속으로 글로벌 리더십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녀는 첫해에 도전부문, 두 번째 해에는 창의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Ysa의 훌륭한 품성과 인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성격, 리더십, 그리고 봉사 정신을 발전시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정환경과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란 Ysa는 어머니를 통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결단력, 자립심 및 신중함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장학생으로 해외 유학을 나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학업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주로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균형 있게 하며 보냈고, 교육 부서장을 맡은 후 학생회 부회장을 두 해 연속으로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Ysa는 고아원과 공공 병원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일에도 힘을 썼으며, 폭풍 해일로부터 해안 지역을 구하기 위해 맹그로브 나무 묘목을 심는 봉사도 하였습니다. 주말에는 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앞선 모든 활동에 만족함을 느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Ysa의 국제 교육에 대한 꿈은 노르웨이에서 12학년으로 공부하기 위해 ‘아메리칸 필드 서비스(AFS)’ 장학금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몰데(Molde)에서 교환 학생으로 공부하며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경험한 후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열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되어 노르웨이 적십자에서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산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의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노르웨이어와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지낸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노르웨이어에 서툴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업무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녀의 친절과 인내에 감사를 표할 때마다, Ysa는 힘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Ysa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청정기술을 카이스트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타인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ading and Volunteering amidst Personal Struggles: A Filipino scholar in KAIST impa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whole university with her initiatives and valuable contributions."

Having won the KAIST Global Leadership Award for the Challenge Category in 2022 and the Creativity Category in 2023, Ysa Margarita San Juan, is the epitome of a true student leader and a passionate volunteer. KAIST gives this award to students who in their spirit of volunteerism live up to the university's core values as they exhibit outstanding creativity and embrace challenges. To be nominated and win the awards is testament to Ysa's traits of resiliency, dedication, compassion and selflessness.

Ysa was accepted in KAIST in August 2020 at the start of the COVID pandemic. Unable to leave her country because of the pandemic restrictions, Ysa had to persevere the difficulties and struggles of studying remotely. Her mental and emotional well-being were constantly being challenged by the unconducive and unhealthy conditions of her learning environment. To overcome these adversities, Ysa transmuted her negative situation with productive and relevant activities. She joined KISA, the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AIST as early as her first semester in the university and was accepted to be a member of the Events Division. Besides her other valuable contribution in the division, Ysa initiated the planning of the activities of Aloha 2021, an online year-end ev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long with her division, she was praised and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Scholars and Student Services (ISSS) of KAIST for its success. This impressed upon KISA's officers and members her good work ethic and leadership potential which led to her appointment as the head of the division the following semester even though she was still off campus.

She made it her goal to give the international students multiple entertaining and informative online events to destress them from their academic life amidst the pandemic situation. The Department Days was one of these events wherein speakers from the different academic departments in KAIST helped freshmen students in their big decision in choosing their course as a proper in person orientation cannot be held. Online weekly game nights were also played for fun and socialization.

Ysa continued to support her division as a member again on her third term in KISA. This showed her trait of humility and generosity as she did not mind mentoring a previous member of her team even though she could have held a higher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She also decided to do a double major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Industrial Design during this term. Her undeniable value and qualities as a student leader could not be contained though as she was nominated and elected as KISA's president the following semester. She was still in her home country at that time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lieved in her ability to overcome this bigger challenge and responsibility.

A few months in her presidency, Ysa was finally given her D2 visa and was able to physically spearhead numerous events and activities in KAIST already. One of this is the

2022 International Food Festival where 17 food booths gave the whole KAIST community the chance to savor different cuisines of the home countr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Ysa also aimed to connect more with the country representatives of the university, improve the organization's communication platform, and improve KISA's presence and interaction with the Korean students. Her days were filled with numerous meetings with her officers and members, with the ISSS, the Undergraduate Students Association and the Graduate Students Association. In addition to her KISA work, Ysa also became a member of Silver Lining, an international volunteering organization in KAIST where she actively volunteered to teach English and Science to young Korean students in local daycare centers. She was also part of the events team to promote camaraderie amo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her second term of presidency, Ysa became active with several organizations, events and work opportunities. She was selected by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eam of KAIST to become a host of their YouTube channel interviewing student representatives from different country communities. The channel discussed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help their students adjust and cope with life in South Korea. Ysa also helped revive KAIST ONE (KAIST Overseas Networking Exchange) which gives the KAIST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ies the chance to introduce their home countries through cultural presentations, performances and their local food. She was also accepted as a freshman proctor for the classes of Happy College Life and Exciting College Life where she helped these new students to adjust to their life at KAIST and consoled them when they felt alone and overwhelmed with their school tasks. Before ending her term as KISA's president, Ysa together with her fellow members met with the president of KAIST to voice out the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studen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ncluded the need to create more part-time job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were struggling with their finances as their monthly living expense were not enough for their daily expenses.

All of Ysa's responsibilities and achievements were recognized by KAIST which made the university confer to her the Global Leadership Award for two consecutive years.

She received the awards for the Challenge Category in the first year and the Creative Category in the second year. So one can fully apprehend Ysa's fine and admirable qualities and her humanity as well, one has to know her home environment and her high school life experiences to understand how she developed her character traits, leadership abilities and spirit of volunteerism. Growing up without a father who abandoned their family, Ysa learned through her mother's example the value of hard work and had to be determined, self-reliant, and level-headed. She became resolute in achieving her academic dream of studying abroad with a scholarship to have better life opportunities. Her high school life in the Philippines was all about balancing her academic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included becoming the education secretary then the vice-president of the student government for two consecutive years.

She also immersed herself in volunteer work visiting orphanages and a public hospital, and volunteered to plant propagules to become mangrove trees to save a coastal community from a possible storm surge. She signed up as well to teach elementary public school students English and Math during her weekends. She found all these activities fulfilling and rewarding which sparked her passion to make life better for those in need.

As for Ysa's dream to have a global education, it started early when she was awarded a partial scholarship by American Field Services (AFS) to study in Norway as a Grade 12 student. Ysa gained the opportunity to interact and communicate with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while studying as an exchange student in Molde, and made her embrace and appreciate diversity and understand the world more. Her passion to serve others also continued there when she signed up to be a volunteer for the Norwegian Red Cross. Not only did she learn how to save people who were trapped in the mountains but she also tutored migrants and refugees from Africa and the Middle East who needed help with their Norwegian and Math classes. She initially found her work daunting as her Norwegian was still very limited considering that it was only her second month in Norway. She was however very much encouraged to accept the challenge every time her students were overjoyed with their achievements and thanked her for her patience and kindness.

For her university studies, Ysa was filled with happiness and gratitude when she received a fully funded scholarship from KAIST. She believes that KAIST can give her the opportunity to realize her dream of studying a course that advocates clean technology that will help protect and preserve our environment. Having a competitive and global education from KAIST will allow her to have a future career that can continue her advocacy to serve those in need and help make other people's lives better.

24 포기하지 않은 꿈과 한국에서 이룬 희망

이유정

국 적 한국

원국적 베트남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포기하지 않은 꿈과 한국에서 이룬 희망

나는 베트남 어린시절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오토바이 부품 공장에 수출입, 경리 담당으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직장생활은 힘들었지만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지금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눈빛과 몸짓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서로 호감이 생겼고 남편과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막상 국제결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계속 베트남에서 자라왔고 생활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한국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겁나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믿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국제결혼에는 많은 서류와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1년이 다 될 쯤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처음 한국생활을 시작하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기대를 품고 한국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나의 인생은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생각하지 못한 낯선 외국생활이었고 다른 결혼 이주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많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건 내 나이 스물두 살 때였다. 베트남에서는 결혼하기 어린 나이가 아니지만 자매 넷 중에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의 예쁨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가족들과 헤어져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힘들고 불안했다. 게다가 남편이 장남이라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하고 농사를 오래전부터 짓고 있던 터라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고부간 사이가 좋지 않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우리 시부모님은 생각과 달랐다.

오히려 결혼 초, 나와 남편 사이에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오해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께서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처음부터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딸처럼 생각하겠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행복했다. 그래서 나도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이니깐, 잘 살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열심히 배우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살아가자.”

누구든지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할 것이다. 같은 나라 사람과 결혼해도 힘든 게 결혼생활이고, 국제결혼은 더 어려운 일이 많은 게 사실이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을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다들 항상 서로를 위해 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한쪽만 잘 해줘도 소용없다. 서로 잘해주고 배려해 주면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점차 한국생활이 익숙해져 갔다. 그러던 중 나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다. 행복했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많았다.

첫 번째 임신이라 입덧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남편과 부모님은 매일 새벽에 밭에 나가셨고 낮 시간 동안에는 집에 혼자 있어야 했기 때문에 힘들고 외로웠다. 친정 엄마가 그리웠고, 참기 힘들 정도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이 맞았지만, 입덧을 하게 되면서 입에 넣기도 어렵게 되었다. 거의 매일 울며 지내면서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견뎠다. 3개월이 지나고 입덧이 사라지면서부터 아기만 생각해도 행복한 시기가 찾아왔다.

드디어 건강하고 예쁜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나 또 다른 걱정도 많아졌다. 여전히 낮 시간은 혼자였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베트남에 계신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이 키우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육아 서적을 샀다. 매일 책을 보고 맛있는 이유식을 만들어 주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고, 힘든 육아였지만 아기가 있어 외롭지 않고 행복했다.

하지만 아기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이 늘수록 엄마로서 걱정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걱정과 염려의 연속이었다. 말이 트이고 아이의 호기심이 많아지면서 "엄마 이게 뭐예요?"라며 매일 수십 번을 물었다. 대답해주고 싶지만 가끔은 엄마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을 엄마에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았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다. 나는 한국 엄마처럼 아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자신 있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지금도 나의 한국말이 부족해서 우리 아들에게 방해될까 봐 걱정도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나? 혹시 내가 외국 사람이라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놀리면 어떡할까? 또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다른 한국 엄마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열등감도 생겼다. 아이를 위해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고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일 아이를 업고 다문화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다. 너무 힘들었지만 배울 수 있으니까 행복했고, 나 자신과 나의 아이를 위해 꼭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다. 매일 낮에 학원에 다니고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밤새도록 공부했다. 그 결과 귀화시험에 합격하여 첫 목표를 이루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이수하였고 토픽 한국어능력시험도 합격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작성 안내와 베트남어 통번역 자원봉사를 지원했다.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를 위해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다. 매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한국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이주여성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모두 참석하여 컴퓨터 한글 자격증도 취득했고, 유학생 대상으로 강연하는 법무부 조기 적응프로그램 강사가 되었다.

그 무렵,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기뻤지만, 육아로 인해 지금 하고 있는 강의활동이 중단될까 봐 두려웠다. 그때 마침, 시부모님이 농사를 접고 육아를 도와주시면서 나는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렇고 난 항상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며느리, 현명한 아내 역할 뿐 아니라, 똑똑한 엄마가 되어 우리 가정의 둥지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보답하고 싶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문화센터에서 있는 프로그램들을 참석하여 바리스타 자격증, 다문화이해교육, 원어민강사, 엑셀과 파워포인트 자격증 등을 취득했다.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베트남에서부터 꿈꾸던 '대학교 입학'이라는 열망도 점점 커져갔다.

2020년은 꿈같은 해였다.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매년 새 학기 시작할 때마다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속상했고, 더 노력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 다음 해엔 꼭 입학할 것을 다짐했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나 가이드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대학 공부할 때 나는 일을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 마음이 아팠다. 마음속에 항상 '난 언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늘 생각했다. 고향에서 나와 일을 시작했고 나는 돈을

벌어 꼭 대학에 진학하려 했는데, 월급은 고향의 가족에게 다 보내야했다. 돈이 모이지 않는 현실을 볼 때마다 좌절하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처음 한국을 왔을 때도 대학교 앞을 지나칠 때마다 속상했다. '이 학교 학생들처럼 대학을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부러워했다. 그리고 일찍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도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결혼도 안 하고 대신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대학에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배우러 다니며 알게 된 친구를 통해 외국인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면 입학금도 저렴하고,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용기를 내어 가족들 앞에서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과 남편이 반대하셨다. 늘 나에게 잘해주셨지만, '남편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고 내가 대학교 졸업하면 남편을 무시하고 가족을 떠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는 이유였다.

그런 사실을 알고는 너무 속상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더 열심히 다문화센터에 다니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취직이 쉽지 않았다. 지원 서류를 접수할 때마다 대학교 졸업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유학생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작 강사인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욱더 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했다. 어느 날 한 유학생이 질문을 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셨어요?"라고, 나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창피함을 느꼈다. 이때 다시 한번 반드시 대학 진학할 것을 다짐했다.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를 꿈꾸기도 했었고, 또 외국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배움을 전달하는 것이 나와 더 맞는 것 같아 고민 끝에 교육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첫 수업 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강의에는 전문 학술 용어들이 많아서 사전으로 찾아야 하는 단어가 많았고,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도 많이 있었다.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었지만, 아들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매일 숙제를 도와줘야 했다. 과제와 학과 공부도 있어 새벽에 잠이 들었지만 행복했다.

난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활동을 병행했다. 2017년에 다문화이해교육 양성과정 수료 후 다문화 이해강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부터 다이음 강사를 하게 되었다. 요즘에 직장이나 학교, 길거리에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서로 문화 차이나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편견과 차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EPS서포터즈 하는 역할로 근로자와 고용주 의사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통역 및 상담업무도 하였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이민자네트워크 회원 민원실 자원봉사로 서류작성 안내와 통·번역 봉사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 문제와 한국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무지로 한국의 법과 규칙을 위반하여 원치 않는 강제 출국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류작성과 관련하여 대행사에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대전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원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곳은 외국인의 체류, 노무, 국적, 법률, 생활 관련한 상담,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누구나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올해부터 한 법인에서 취직하여 한 부모 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준 사례가 있었는데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쁘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지만, 4년이 지나 무사히 대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정말 꿈 같은 날들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멈추고 싶지 않다. 나는 더 발전하고 싶고 나와 같은 베트남 출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이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한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력과 국가의 다문화정책은 물론 외국인 스스로의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잘 어울리기 위한 열정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5 몰도바에서 온 한국 아줌마

비즈도아가 루드밀라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몰도바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몰도바에서 온 한국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루드밀라 "아줌마"입니다 (Ludmila Vizdoaga). 아줌마를 구글링하면 파마머리, 화려한 의상, 짙은 화장, 크고 거친 목소리, 확고한 생존 본능 등 흥미로운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는 남성, 여성, 아줌마의 세 가지 성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몰도바 시골 소녀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8년이 넘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저는 지금 한국에서 힘든 경험을 통해 강한 생존 본능을 갖춘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살러 가도 가장 먼저 힘든 것은 그 나라의 언어지만, 한국에 와서 배운 한글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가장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알파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가 '한국어는 악마의 발명품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한국어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의 그 답답함과 당혹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한 지 18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구절, 조사, 높임말 어법이 여전히 저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한국인처럼 산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주변에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18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얀 피부와 녹색 눈은 대전 지역에서도 꽤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학교에 가든, 복지센터에 가든, 시장에 가든 사람들이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뒤에서 낄낄거리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놀림 받는 원숭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외모가 아니라 유창한 한국어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 시장에서 한국말로 흥정하고, 길을 묻고, 음식을 주문하고, 커피를 주문할 때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죠?”라고 말하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글쎄요, 한국에서 18년 넘게 살면서 제가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가 되었을까요?

이러한 적응기간 동안의 오랜 경험은 저에게 때때로 절망을 안겨주면서도 아줌마로서의 생존 본능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년 동안 커피를 좋아하는 커피바리스타로 일했고 동시에 대전시민대학에서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한국이민재단이 운영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조기적응프로그램에서 러시아어로 한국의 법에 대한 강의 및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한국말은 이제 재미있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에서 학업을 시작했고 보험설계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가끔 “나는 누구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의 일부를 이룬다는데 가끔은 생존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며 달려온 시간들에 지쳐 내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볼 때면 많은 감정들이 떠올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몰도바인 인가? 아니면 나는 이제 한국인인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머나먼 땅 몰도바에서 온, 이제는 한국 아줌마라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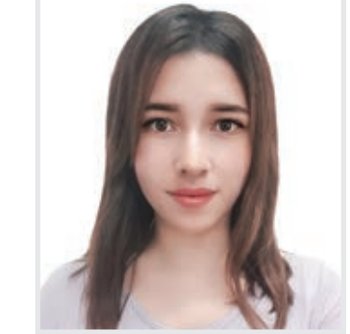
10년 전만 해도 “몰도바”라는 나라는 한국인들에게 생소했습니다. 몰도바를 소개하면 대부분 몰디브를 연상하곤 했습니다. 매번 발음에 힘을 실어 강조하며 소개를 해야 했죠. 몰. 도. 바. 이제는 가끔 매스미디어의 여행 프로그램이나 국제 뉴스에 소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몰도바라는 나라는 한국인들에게 낯선 나라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몰도바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몰도바 젊은이들도 K팝이나 드라마로 한국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몰도바가 한국에 대해 아는 만큼 한국인들은 몰도바를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몰도바인인 저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몰도바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원 카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주특별자치교육청과 몰도바 교육 인력 간 교류 프로그램에서 번역,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고 국제행사에서 몰도바 관련 번역,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강사로 참여하여 프레젠테이션으로 몰도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몰도바 음식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과 글로벌 음식 축제와 같은 행사에 몰도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소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해야만 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쩌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한 퍼즐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문화가 지닌 아름다움과 매력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한국 아줌마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26 한국 거주 쿠바 여성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기



ESPINOSA BELTRAN LIEN

국 적 쿠바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한국 거주 쿠바 여성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기

안녕하세요. 저는 쿠바에서 온 리엔입니다. 얼마 전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간 쿠바에 사는 동안 많은 한인 후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발전이 생겨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대략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처음 쿠바에서 한국으로 올 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은사님의 도움으로 여러 제반 서류를 완성할 수 있었고 한국으로 마침내 입국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상지대학교 어학당이었습니다. 어학당에서 저는 한국어를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이미 기본 의사소통은 가능했었습니다. 쿠바에서 있을 때도 한국문화와 언어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터라 K-POP이나 여러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을 검정하는 콘테스트에 나가서 수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오니 한국어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상지대학교 어학당에서 대략 6개월간 수업을 들어가며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이 힘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은사님의 도움을 한 번 더 받아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든 강원도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부산으로 떠나야 하는 마음에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부산은 서울처럼 외국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아주 기분도 좋았습니다. 부산에서 새로운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멋진 곳에서 공부할 생각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2년간 부산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며 머물렀는데 모든 시간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부산 사투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 충분치 않아서 많은 경험을 풍족하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매우 행복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우연히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였지만 1년가량 차분히 만남을 가진 후 저희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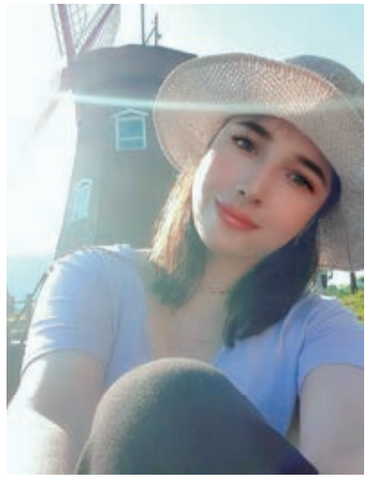
이제는 남편의 고향인 충북 청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은 매우 멋진 도시입니다. 자연환경이 많고 사람들도 아주 느긋하고 친절합니다. 또 무엇보다 얼마 전 세상에 태어난 저의 아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공동 노력으로 쿠바에 계신 부모님도 공식 초청을 드려 지금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쿠바 상황이 그간 좋지 않아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가슴 벅찬 일은 얼마 전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사실 양국이 비수교 상태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쿠바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어서 제3국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작년에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했는데 한국에 쿠바 대사관이 없어서 일본에 있는 쿠바 대사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또 하나 큰 불편한 점은 정식 금융 거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비수교 상태여서 은행거래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에 쿠바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부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점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종종 쿠바의 행정 문서가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면 쿠바에서 공인한 공식 문서를 받아야 하는데 쿠바로 직접 항공우편을 통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이런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쿠바는 비록 아직 대외적으로 공산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유주의 한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큰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 양국이 멋진 교우 관계를 맺고 어려운 쿠바의 상황이 점차 개선되길 바랍니다. 미래에는 한국-쿠바의 직항 노선도 개설되어서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쿠바를 아들, 남편과 함께 방문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27 대구출입국 이민자 네트워크 “동행 프로젝트”

대구출입국 이민자 네트워크

대구출입국 이민자 네트워크 “동행 프로젝트”

지난가을 우리 이민자 네트워크는「동행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분기별 봉사활동을 해나가자고 마음을 모았다.
삼삼오오 뜻 맞는 사람끼리 모임처럼 만나 작은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구 근대골목으로 플로킹 투어를 2차례 다녀오고,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과 우리가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2024. 2. 7. 새해 설을 앞두고 우리 이민자 네트워크를 알리고 또 함께 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사실 복지관에 처음 봉사를 신청하려고 문의했을 때는 “지금은 딱히 필요하지 않은데..”라며 미지근한 답변을 주셨다. 하지만 “저희는 특별한 봉사단이라고, 세계여행 온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우리의 존재와 뜻을 말씀드리니 곧 흔쾌히 방문을 환영해주셨다.
가끔은 특별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우리는 복지관에 가지고 갈 홍보 물품을 모아 부지런히 포장하고 만든다. 대단한 물건은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포장하여 두 손 무겁게 갈 생각에 마음이 벌써 행복해진다.

우리의 역할은 “똑똑노인학교”에 재학 중인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해드리는 일이었다. 그간 애쓰며 살아온 당신들의 삶을 격려해드리며「오늘은 호강하는 날」로 족욕과 발마사지를 해드리고, 배식을 도와드리는 일이었다.
우리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말씀드리며 손을 건네니 “아이고 얼마나 됐길래 이리 말을 잘하냐”며, “만리장성에 가봤다”며, “베트남 색시”라며, “이름이 뭣이 그렇게 길고 어렵냐?”며 호기심 어리지만 따듯한 눈빛으로 “한국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으신다.

“한국 너무 좋지요.. 정도 많고,,, 안전하고,,”라고 대답을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에 대한 마음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보여드리려고 했다.

이민자 네트워크의 왕언니 김연매 쌤은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자는 말에, 봉사만 하면 심심하고 중국 전통공연을 보여주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실 것이라며 바로 재주 많고 흥 많은 교민회 언니를 섭외해주신다.
“아 무료로 공연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라고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일단 시간부터 되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이미 폰을 들고 있는 연매 쌤이시다.

시간을 내어주신 류수지 쌤과 이숙분 쌤은 중국 전통악기 호로사로 고향 생각이 나는 구슬픈 음악과 손북으로 흥겨운 공연 2곡을 준비하여 제대로 밀당 공연을 하며 한껏 분위기를 살려주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연신 폰으로 영상을 찍으시며 집에 가서 보여준다고 하신다.

공연을 하던 류수지 쌤은 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났다며 잠시 눈가가 촉촉해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찡하게 하셨다.우즈벡 새신부 알리조노바 쌤은 이가 안 좋아서 잘 씹지 못하는 할머니의 식판에 음식들을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주신다.

차연매 쌤은 아이들에게 해주던 마사지 실력을 한껏 뽐내며 전문가 뺨치는 스킬로 마사지를 해주셨다.

귀화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알리(파키스탄)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깨를 두드려주는 할아버지의 느낌이 따뜻했다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장난스레 “돈 못 버는 다 큰 아들 위해 아직도 용돈 주는 아버지께 오늘 돌아가면 발 마사지 한 번 어때?”하며 말을 건네본다.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시간이었다.

28 나의 출입국, 나의 금요일

이 지 인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우즈베키스탄

나의 출입국, 나의 금요일

금요일, 나는 출입국 금요일 선생님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금요일 선생님이 되어 있었고 꽤나 유명해져 있었다. 모르는 우즈벡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내 얘기를 한다곤 한다. “출입국에 업무를 보러 가려면 금요일 오후에 가야 해” 이런 이야기가 흘러흘러 내 귀에까지 들려온다. 나는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금요일 오후에는 스케쥴을 잡을 수 없게 됐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바빠지게 됐지만 금요일 오후만은 오롯이 금요일 선생님이 되는 일이 싫지 않았다. 뭔가 책임감처럼 나를 기다리는, 기다릴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말이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수십 통이다. 전화로만 이미 아는 사이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나중에 건너건너 그 사람을 진짜로 알게 되어 반가워하기도 한다. 방문 예약을 할 줄 몰라서 내게 부탁한 고향 사람이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표시로 조카에게 부탁해 기프티콘을 보낸 일도 있다. 방문 예약이 기프티콘 보내는 일보다 쉬울 텐데 말이다. 민원실에서 고맙다며 음료수를 건네거나 연신 고맙다는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전화로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용건만 묻고 확인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으니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새벽 일찍 잠이 덜 깬 채로 출입국 선생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기도 한다. 수상한 누군가가 한국으로 입국하려나 보다 하며 눈을 비비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정신없이 전하며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날이다.

어느 날 오빠의 경찰서 방문 업무를 따라갔다가, 경찰분이 “아이고, 한국말을 이렇게나 잘하네”하며 앞으로 통역이 필요하면 연락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나에게는 새로운 일,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그때 이미 한국 국적도 있었고, 말하기와 읽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글쓰기와 맞춤법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됐고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때 처음으로 가족센터를 방문하게 됐다.

어휘와 문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출입국에서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해피스타트라는, 지금의 조기적응프로그램 같은 교육에 멘토를 구한다는 베트남 친구의 권유로 출입국과의 첫 인연이 시작되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즐겁고 더욱 활기가 생겼다.

출입국 민원실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여러나라에서 온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반장님, 계장님들을 만났고, 또 그 선생님들과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그 선생님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다른 길을 알려주셨고, 내가 머뭇거릴 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셨다.

점점 활동하며 내가 우즈벡의 얼굴이고 대표라는 마음으로 출입국에서 추진하는 일은 뭐든 열심히 참여하게 됐고, 동포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애썼다.

덕분에 외국국적동포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난민전문통역인,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뿌리는 출입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받은 기회,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한다. 올해는 대구사이버대 학생으로 새로운 시작을 또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다 보면 또 내게 좋은 기회와 좋은 인연이 선물처럼 올 것이라 믿는다.

나의 대한민국! 나의 출입국!

29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박선우

국 적 대한민국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다문화국제학교 담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우입니다. 한국어 수업만을 담당하다가 담임교사 업무를 겸하여 일하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양해진 시선만큼 업무량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2월 말인 지금 새 학기를 맞으며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며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생활 중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 무엇인가를 묻곤 합니다. 사실 특별히 내세울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설명하기에는 학생들과 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급 구성원이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모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다문화국제학교의 하루에는 배움의 열정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보통 오전에는 교과수업(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한국어)을 받고 오후에는 특별활동(태권도, 원예)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격차가 커서 수준별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여도 각자의 한국어 능력이 달라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말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수업을 듣거나, 기존 입학생의 통역을 통해 수업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수업 마감으로 인해 듣지 못하여 아쉬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많은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태권도입니다. 처음에는 공간 및 시설 지원의 부족으로 조기 폐강 위기에 있었지만, 태권도진흥재단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맞는 개별 도복과 태권도용품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권도에서 강조하는 예절 문화를 통해 학우 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 기존에는 같은 언어권 학생들 중심의 소통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언어권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운동이 주는 건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며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 즉 입학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고향의 학적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다문화예비학교 학력 과정을 통해 학교에 입학하므로 제출날짜만 잘 지켜진다면 학교 입학 자체는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은 입학 서류 준비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 된 경우가 많으며, 고향에서의 서류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려 입학 시기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과 부모님의 거주지가 다르고 기존 학교에서 전·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교육청, 전학 전/후 학교, 학부모님, 학생 모두에게 연락하여 상황 설명을 해야 하기에 서류 준비 과정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학교 입학에 대한 안내 규정이 있지만, 학생마다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는 보통 2년마다 인사이동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학교 입학 서류를 준비하여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관내 고등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절당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은 입학을 허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입학을 불허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학교 운영위원님의 도움으로 거주지에서 2시간 떨어진 고등학교로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국제학교에서의

위탁 교육을 희망하였기에 원적학교가 위치한 곳의 통학은 학교에서 지정한 등교일수 20일만을 등교하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업 일수를 떠나서 외국인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대화도 나눠보지 않고 편가르기 하듯 입학을 거부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교육청에서도 다문화위탁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학교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예전과 같이 여러 학교를 들려가며 입학 상담을 하는 상황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 학생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장벽은 높고 특히 서류 준비 과정이 복잡하여 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보다 해당 교육활동이 규정에 맞는가를 먼저 논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한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필요한 교육활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규정으로 인해 교육 제공자와 대상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다문화국제학교 담임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과의 학교생활과 입학 과정에 대한 고충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슬기롭게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역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유연한 사고로 문제를 마주한다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관점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과 수업

태권도 활동

EBS 견학

다문화국제학교 운영위원회

원예 활동

우쿨렐레 공연(반기문재단 세계시민교육)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30 하늘이 주신 선물

이강녀

국 적 대한민국

하늘이 주신 선물

에란다를 만난 것은 2022년 3월 6일 코로나가 한창 성행하던 시기에 온라인 수업 4단계에서였다. 수업환경은 겨우 얼굴만 인지할 수 있을 정도여서 목소리와 얼굴로 소통했다.

지각과 결석에 이유를 물으니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되었다고 했다. 게다가 기르던 애완견마저 죽었다고 한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마음을 다잡아 하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다.

그럭저럭 에란다는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하여 4단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에란다에게서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아내가 임신 3개월인데 당수치가 너무 높아 죽을 것 같다고 했다. 임신 중이라 산부인과를 가야 하는데 병원을 찾아달라고 했다. 주변에 산부인과가 없다고 했다. 저출산 시대라 산부인과가 많이 없어졌나?

내가 출산과 관계가 없다 보니 생소하기조차 했다. 가까운 대학병원에 검색해보니 산부인과가 있었지만, 연휴가 끼어 있어서 연결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같은 나라 친구의 소개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는 전갈이 왔다. 이 전화를 하는 에란다의 목소리는 떨렸고 절박한 심정에 울음까지 느낄 수 있었다. 얼마 있다 또 전화가 왔다. 코로나로 인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는 얼씬도 못 하고 전화로 연락을 받았는데, 아내와 배 속의 아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니 아이를 포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심장, 갑상선, 당뇨, 담낭 등의 치료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했다.

그래도 나를 믿고 이렇게 간절한 통화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센터의 사무장목사님(이준동)에게 전화를 했다. "지난번 수업을 마친 학생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학생을 만나서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성모병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는 볼 수 없었고 다만 남편과는 간호사의 전화가 연락 수단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주변은 전원 철저한 마스크를 착용한 삼엄한 분위기여서 우린 병원 내 카페에서 차 한 잔씩을 앞에 놓고 잠시 침묵했다.

에란다의 모습을 처음 본 나는 깜짝 놀랐다. 잘 생겼고, 체격도 크고, 게다가 인상이 아주 선해보였다. 그 큰 눈에 글썽이는 눈물은 마음을 참 아프게 했다. 내가 에란다에게 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이 한세상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잘하려고 해도 또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 아내와 배 속의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의사가 잘해주면 고마울 따름인데 지금 아내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당신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에란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도 부탁을 했다. 세 사람은 손을 포개어 꼭 잡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다. 다행히 에란다는 무종교였다.

"사람인 의사는 불가능을 이야기했지만, 저 의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산모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태아에게도 기적을 일으켜주시어 저가 순조롭게 출산되기를 원합니다."

한동안은 전화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살던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서 친구집에 있다고 했다. 에란다는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으며 자기 차도 소유해서 시간이 되면 아내와 여유 있는 여행, 맛집을 다니며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해도 좋다는 소식과 아이도 건강하다는 전갈이 왔다.

다시 온 연락은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다. 건강하다. 스리랑카에서는 따로 하지 않지만, 백일잔치를 하고 싶다.

선생님과 사무장목사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에란다 집에 찾아가서 처음 만난 아기는 정말 예쁜 바비인형 같았다. 그리고 엄마인 루워니의 얼굴도 남편을 닮았는지 참 선해보였다. 얼마 후 우리는 돌잔치에도 초대받았다.

에란다의 가족은 시간만 되면 암미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예배도 드리고 루워니는 기초반(센터자체프로그램)에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다.

이들과의 관계는 국경을 넘어, 종교를 넘어, 제도를 넘어 삶의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감사, 그저 감사의 관계이다.

31 외국인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자통합센터

이민자통합센터

외국인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자통합센터

외국인 범죄피해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도울 방법을 찾던 중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와 이민자통합센터(센터장 김세영)는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9년 7월 일산동구청에서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하였다.

외국인범죄피해자 지원단은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를 지원하고 외국인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힘이 되어 주기도 한다. 외국인들의 통역지원과 법정 동행을 실시하고 세계여성의날과 인권의 날 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를 지원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태국 여성의 도움 요청이 있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후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접수 후, 태국 통역 지원단과 함께 해바라기 센터에서 치료받으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 중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접수한 사례들이 있다. 얼마 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필리핀 결혼이민자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남편과의 협의 이혼 과정 중 법정 교육에 동행하여 통역을 해주며 심리·정서적 지원과 협의 이혼 절차와 이혼 과정에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을 진행하였다.

외국인들끼리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모로코 출신이 한국에 정주하면서 같은 모로코인과 동거를 시작했고 동거 과정에 폭행이 잦고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헤어지기를 원해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남성이 나타나 협박을 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되었고, 모로코 여성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경찰서나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단은 현재 3기까지 활동 중이며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러시아, 모로코,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말리,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태국, 가나 18개국 25명이 이민자통합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지원단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23년 1월에는 법무부 검찰총장님과 외국인범죄피해자 지원단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외국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단의 노고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외국인범죄피해지원단은 ONE-STOP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협의체에서도 활동 중이며 고양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쉼터, 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각종 솔루션회의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실시하는 고양시 인권대회에 참석해 외국인들의 인권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세계여성의날은 '여성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안정적 주거 및 생활 그리고 정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민자통합센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외국인들의 정주를 지원하고 외국인들의 권리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중 이중언어가 가능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범죄피해자 지원단도 외국인이 외국인을 돕고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면서 외국인들의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통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1365

미담사례집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을 한 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 봉사자는 지자체 표창장을 추천하거나 자원봉사센터 표창을 추천하여 자존감 향상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민자통합센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이지만 지역사회 한국인과 외국인 주민들이 잘 정착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32 한국 입국, 26년간 난민과 이주민 등 소수자를 위해 일하는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출신 한국인 “이나니”

이나니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방글라데시

한국 입국, 26년간 난민과 이주민 등 소수자를 위해 일하는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출신 한국인 “이나니”

저는 이나니 라고 합니다. 김포시 양촌읍에 거주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1994년 입국하였습니다. 저의 원래 이름은 ‘로넬 차크마 나니(Ronel Chakma Nani)’로 방글라데시의 소수민족인 줌머 출신 한국인입니다.

김포시에는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난민, 특별기여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주민이 약 2만 5천여 명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으로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성씨를 창성하여 김포 이(李) 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자부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의 역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상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유학생, 그리고 난민 등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통역과 번역, 고용·법률 등 정착에 관한 상담 지원이 저의 주된 업무입니다.

저는 평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려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김포소방서와 경찰서의 지도하에 의용소방대, 외국인자율방범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외국인주민명예대사>로서 재난·안전 관련 정보의 번역과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외국인 주민들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참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지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한국에 온 이후, 2002년 <在韓줌머인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우리 줌머인 공동체는 방글라데시의 선주민으로, 이주민에 의한 박해와 탄압을 피해 이곳 한국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소규모의 난민 공동체이며 현재 김포시에 있습니다. 우리 줌머인연대는 문화행사,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의 인권과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안내자료

제작과 출판을 통해 그간 열심히 관계 기관에 제공한 결과,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2004년 처음으로 줌머인 난민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한줌머인연대 중심으로 매년 방글라데시 줌머족 선주민의 신년을 맞이하는 축제인 ‘보이사비’를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보이사비’축제에 지역주민과 여러 관계 기관의 방문객이 함께 참여합니다. 2024년4월14일,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축제에는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하여 방글라데시 줌머 소수민족들의 전통음식과 전통의상 등을 체험하였고, 문화예술 공연 등을 즐기며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150여 명의 줌머 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생활하며 기술직 노동자, 다국어 통역인, 자영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자녀들은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당당한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외동아들도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가 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였답니다.

작년 2023년 말 저는, 인구의 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방글라데시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이야기와 함께 한국에서 노동자 난민 등으로 살아왔던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치타공언덕 바르기 한국을 날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치타공언덕(The Chittagong Hill Tracts)’이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의 이름입니다. 또 ‘바르기’란 제 고향인 치타공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소식을 전하는 전설의 새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방글라데시 선주민의 문화, 사회, 종교와 방글라데시에 대한 정보를 한국인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2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민족과 문화 정체성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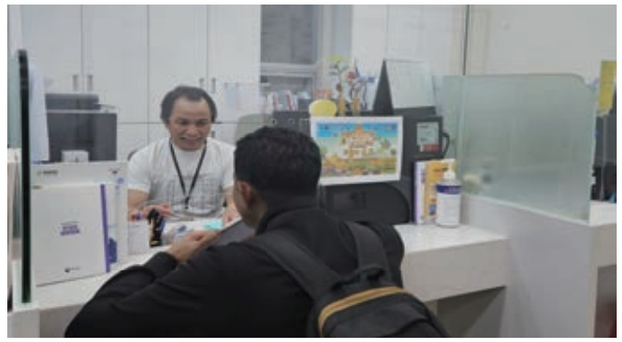
이해와 저와 같은 1세대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정착했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저는 10대 때, 줌머의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 샨타바히니 평화군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고, 1994년 한국으로 피해 와 난민과 이주민을 위해 인권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2004년 한국 나이로 33살 우리의 공동체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10년 동안 저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현재 경기도와 김포시의 후원을 받아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1세대가 다른 난민 그리고 이주민들의 모범 사례가 되어 2세대와 3세대,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선주민들과 같이 떳떳하고 존중받으며 풍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이제 53살입니다. 남은 세월 줌머인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계속해서 고민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언제나 정성을 다할 것이고요, 우리 1세대의 사소한 실수가 이주민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멋지고 모범적인 이주 사례가 될 수 있길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피부색과 말투에서 오는 차이에 따라 나와 너를 가르지 않고, 편견 없이 같은 지역사회를 사는 이웃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향 치타공 언덕도 더 이상 인종과 종교로 탄압받는 일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 되어 언제든 다시 돌아가 여행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글솜씨는 없지만 지금까지 읽어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저희 줌머 난민 그리고 이주민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외국인주민의 고충을 상담하는 이나니 씨의 모습

출판기념식(23.12)

자녀의 임관식 (22.03)

재한줌머인연대 보이사비축제 관련 신문 보도

내외국인이 함께하다(보이사비 축제 장면 2024.4.14)

이주민과의 소통 간담회(오른쪽, 시장과 마주한 이나니 氏)

저서 '치타공 언덕 바르기, 한국을 날다

The 17th Together Day

제17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